朝鮮日報
夕刊
二十二日(金)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朝鮮新鐵道計畫은 軍事上으로重要

平壤에 米國資本中心의 日穀會社잇슴은如何

朝鮮事業公債委員會

【東京電話同盟】衆議院朝鮮事業公債法中 改正法律案(政府提出)委員會第四日은 二十一日午後三時三十分開會 岩瀨亮氏(政友) 平壤은 國防上 重要한 地點인데 此處에資本의大分을 米國이 가지고잇는 日本穀産株式會社가 잇는것은 좀 엇더가 생각하는가 陸軍當局의 意見如何

陸軍當局梅津次官
相當히 考慮를 要할것이라고 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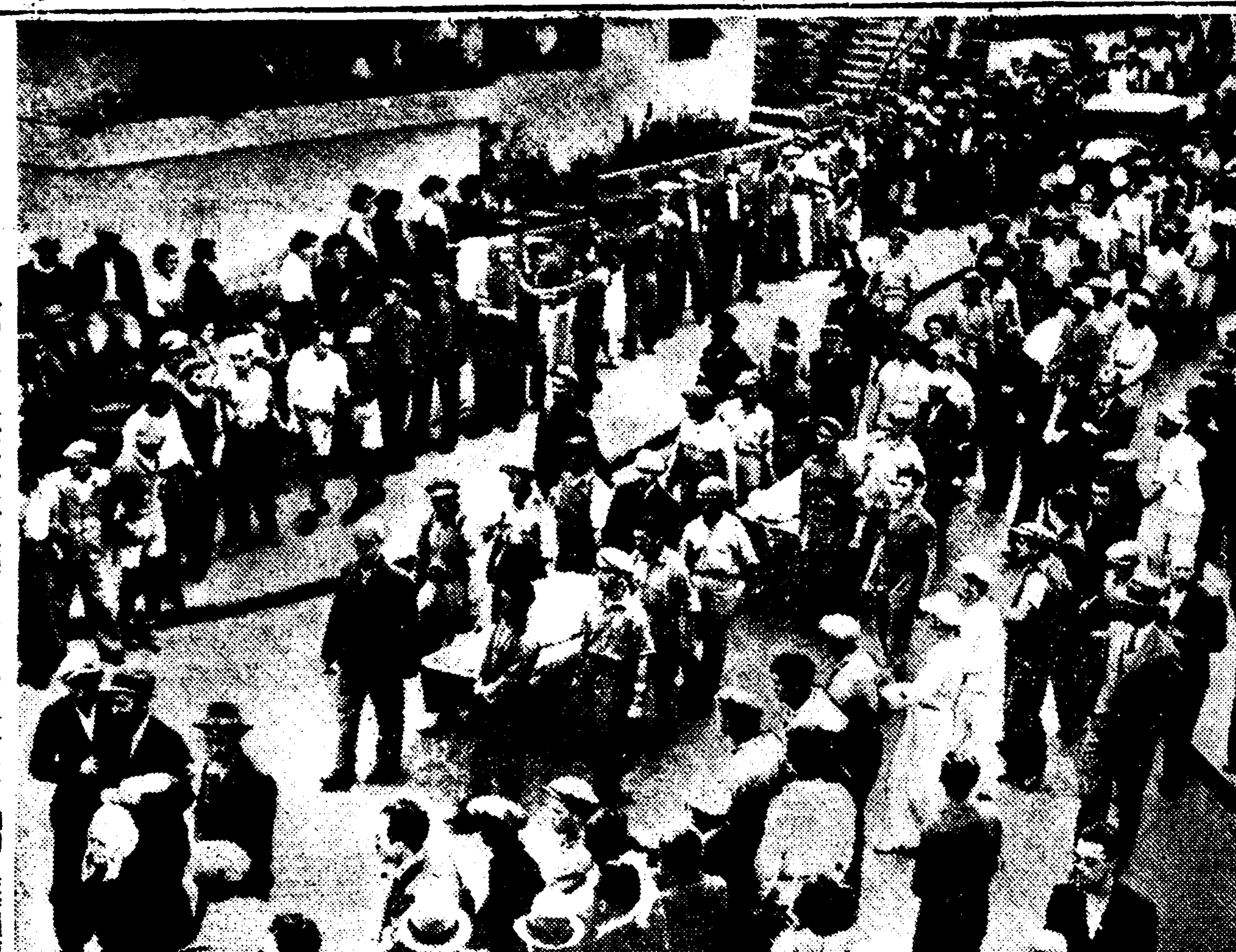
岩瀨氏 總督府에서는 日本穀産에 對하야 그製品 其他에對하야 鐵道運賃을 三割減하야保護한 事實이잇는가

今井田總監
割引은 하엿스나 그것은 鐵道營業上見地에 基한것으로 會社를 保護한것은아니다

다음에 松尾四郞氏(民政)로부터 陸軍當局에 對하야
朝鮮의 新鐵道計畫은 産業開發을 目的으로하는外에 國防上 重要性을 가진다고하는데 新計畫에 依하는것과 海運線에 依하는것은 國防上如何한 差異가잇는가
의 質問이잇고 問題의 性質上 午後三時四十分 秘密會에 入하엿다 午後四時二十五分公開 海軍側으로부터 豊田軍務局長의出席을 求하고 信太鐵石衛門氏(民政)議案經費 其他에關한 所信을 質問하고 다시總督府에서 計畫하는 新線은 急行列車를 運轉하는가를 質問하매 吉田鐵道局長
幹線的으로 將來는 急行列車를 運轉할豫定이다
라고 答하야 川俣淸音氏(社大)로부터 質問中止 動議를 提出하야 成立 民政黨의 態度를決定하기爲하야 午後五時十分休憩 同六時五十分再開 討論에入하야 松尾四郞(民政) 小谷節夫(政友) 兩氏로부터 贊成意思를 表하고 採決한 結果 滿場一致로 可決하고 同五十六分散會하엿다

追加豫算案等 二十二日에貴院通過

【東京電話同盟】衆議院에잇서政府提出諸法律案을 一瀉千里로可決하고 二十一日에는 聖旨奉戴 決議案을 可決하는等 議事는 順調로 進捗되고잇는데 問題의 退職積立金法案 不穩文書等取締法案 總動員秘密保護法案은 依然議論百出하야 歸結할바를몰라 一時 修正으로 艱辛히 通過가 期待되든 退職金積立法案도 二十一日午後以來 又復 紛糾를生하야 그運命은全然豫測하기困難한狀態로 되엿다 一方 貴族院에 잇서서는 米穀案을 爲始하야 重要法案이 山積되여 審議는 바야흐로 白熱狀態에 잇다 二十一日은 午前午後에 亘하야 豫算各分科會에서 豫算案全部의審議를 完了하고 此를 可決하엿슴으로 二十二日 午前十時부터 豫算總會를 開하고 各分科主査의 報告대로 可決한後 即時本會議에 上程하야 擴澤委員長으로부터 委員會의經過 結果報告가 잇고 此를可決하야 昭和十一年度追加豫算案은 拔에政府案대로 衆議院을 通過하야 即日成立을報告하게되엿다 그리하야兩院에 잇서審議는 短期間임에도 不拘하고 거이 通常議會에잇서서와 同一한 程度의 法案審議를完了하게되엿다 問題는 衆議院에係屬되여잇는 三案인데 政府가右三案乃至二案을 放棄치안는限 會期延長은 避치못할것인가 延長하고 通過를圖할는지 斷念하고會期대로閉會할는지 政府도 其間의 微妙한 推移에 深甚注目하고 잇다



팔레스타인의猶太人被殺者葬禮式 아라비아人에게 殺害된猶太人同志들의 葬禮를지내는 팔레스타인의 猶太人슨이스트의 都市텔·아비브街上의 一情景이다 아라비아人의 襲擊을 두려워 葬禮는손과손을 마조잡은猶太人群衆의 護衛下에서 行進되는것이다

會期不延長方針

退職積立法案審議는뒤로

不穩文書法、總動員秘密保護法通過에全力

政府의 諒解運動奏效?

【東京電話同盟】今議會의 會期도 겨우 三日밧게안남엇다 退職積立金法案外二件의 重要法案을 中心으로 數日來 苦慮하고잇는 衆議院은 政府와 同樣으로 漸次 焦慮하는빗을 보이게 되여 政、民兩黨首腦部는 二十一日朝來 局面打開에 努力하엿슴에도 不拘하고 部內는 마친내 無統制에陷하야 前記三件을 倂託맛흔 委員會의 議事進行은 全然 豫想이 서지못하엿다 이情勢에鑑하야 政府는 退職積立金法案때문에 不穩文書等 取締法案、總動員秘密保護法案이 犧牲될것을 極力避하기爲하야 藤沼書記官長 次田法制局長官及 梅津陸軍次官 松井資源局長官等이 各派에奔走히 諒解를求한結果 退職積立金法案 委員會의 決定을 뒤로미루고 그前에 以上의 二法案의 審議를 進行하기로되여 二十一日夜 同委員會는 爲先 不穩文書等 取締法案의 質疑에 入하엿다 그리고 總動員秘密保護法案도 陸軍의 努力에 依하야 兩院의 空氣는 자못好轉되엿슴으로 政府도 一層 그成立에 主力을 傾注할 方針으로 貴族院에對하여는 二十二日夜 藤沼翰長이 貴族院書記官長及 交涉委員과 折衝을 遂한 結果 貴族院은 二十二日終日 本會議를開하고 衆議院으로부터 議案送付를 기다리는外 特히 二十三日午前까지에 送付하면 會期를延長치안흘方針으로 極力通過에 努力하려는 誠意를 表示함으로 政府는 二十二日 衆議院의 議事進行에 期待를가지고 會期延長에 對하여는 兩院에對하야 다시考慮치안흘方針을 堅持하고잇다

議會消息

貴族院本會議 (二十二日午前)

【東京電話同盟】二十二日 貴族院本會議는 午前十時二十一分開會、即時日程에入하야
一、關稅定率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衆議院送付)에對하야 中島大藏政務次官의說明이잇고 土地賃貸價格改正法案委員會에 倂託한다음
一、大正十三年法律第二十四號中改正法律案(同上)
一、昭和七年法律第四號中改正法律案(同上)
을一括上程하고 中島次官의 說明이잇고 委員付託
一、製鐵事業法中 改正法律案(同上)을 上程하고 小川商相의 提案理由說明이잇고
水野錬太郞氏(交友) 本法案은 모처럼 設立한 統制鐵鋼事業을 後退케하야 統制自給의 大國策을 挫折케하지안는가
小川商相
政府의 統制政策은 自給自足을 大方針으로 一步進하야 海外進出도 希望하고잇다 本法案은 決코 大國策에 矛盾되는것이 아니다 本改正案에 依한製鐵自給率이마마日本製鐵業이 影響을 바드리라고는 豫想되지안는다
永野海相 本問題는 海軍으로서 重大한問題임으로 商工當局과 慎重研究한結果 只今商相이 述한바와가튼結論에 到達한것이다
水野氏 自席에서 商相은自給自足이라하나 現在米國의 屑鐵과 印度의銑鐵의 供給을仰하고잇는것은 一東京고 日本內部에 屑鐵이 蒐集하고잇는것으로 自給自足達成의 萌芽를 採取하는것은 고와하다
商相 今日은 自給自足의 域에 達하기爲하야 여러가지로하고잇다 日鐵增産計畫의 年限을 短縮하고 아웃사이더의鎔鑛爐建設을 許可한것도 이方針에서 나온것이다
그리하야 十八名의 委員에 付託한다음
一、思想犯保護觀察法案(同上)
에對하야 林法相의 說明이잇고 十五名의 委員付託
一、臺灣拓殖株式會社法案(同上)
一、臺灣私設鐵道補助法中改正法律案(同上)
을一括上程하고 永田拓相의說明이잇고 十八名委員付託
一、昭和九年度第一豫備金支出의件(承諾을求하는件)(衆議院送付) 外六件
을一括하야 中島大藏政務次官의 說明이잇고 大正十三年 法律第二十四號中 改正法律案의 委員會에 倂託한다음
一、昭和十一年勅令第七號(承諾을求하는件)(衆議院送付)에對하야 委員長의 報告가잇고 承諾을與하기로決定
一、職業紹介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衆議院送付、第一讀會의續)
에對하야 委員長의 報告가잇고 可決確定한다음
一、昭和十一年度一般會計歲出의財源에 充當하기爲하야 公債發行에關한 法律案(同上)
一、昭和十一年度一般會計歲出의財源에充當하기爲하야 特別會計에屬하는 資金의繰替使用等에關한 法律案(同上)
一、昭和七年法律第一號中 改正法律案(同上)
一、昭和九年法律第七號中改正法律案(同上)
一、對中文化事業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案(同上)
에對하야 委員長의 報告가잇다
【東京電話同盟】討論에 入하야 對中文化事業特別會計法中 改正法律案에對하야 樺山愛輔伯(研究)으로부터 贊成意見開陳이잇고 一括可決確定
一、土地賃貸價格改訂法案(政府提出、衆議院送付、第一讀會의續)
에對하야 委員長의 報告가잇섯고 報告대로 可決한다음
一、土地賃貸價格改訂法施行에伴하는 耕地整理法의 特例에關한 法律案(同上)
을上程하야 委員長의 報告가잇고 即時 可決하야 衆議院으로부터 法案의送付를 待하기爲하야 日程一件을남기고 同十一時五十一分休憩 午後三時再開

議會制度革正等

兩黨代表決議案決定

【東京電話同盟】政民兩派代表 濱田、八重(民政)濱田、安藤、松野(政友)의 諸氏는 二十一日午後三時 議長室에서 會合하야午前에 議題하야 議會制度革正 選擧法改正問題에 關하야 協議한 結果
一、兩案을 別個의 決議案으로 提案할것
一、明二十二日 各派에交涉하야 同日 共同提案으로 提出할것
一、二十三日 緊急上程하기로決定한 兩決議案의 主文은如左하다
議會制度革正에關한決議案
主文 時勢推移에 鑑하야 衆議院의 機能을 一層發揮하고그 能率을 圖함은 特히 緊要함을 認定한다 따라서 政府는 議會制度調査會를 設하야 이改正을 次期議會에 提出하라
右決議함
衆議院議員選擧法改正에關한決議案
主文 衆議院議員選擧實施의 成績은 立法의 趣旨에 反하고 社會의 實情에 副치안는바甚히 만흠을 認定한다 따라서 政府는 速히 衆議院議員選擧法改正委員會를 組織하야 本法과 附屬法規의 全般에亘하야 審議하여 이改正案을 次期議會에 提出하라
右決議함

退職金法案으로 民政黨內에紛糾

【東京電話同盟】退職積立金法案의 衆議院審議는 注目의的이되여잇는데 이에關하야 民政黨은 二十一日午前十一時 院內代議士會를 開하고 川崎特別委員會理事로부터 特別委員會의 經過報告를한다음『이問題의 審議는終了된 機會임으로 黨의態度決定에 對하여는 先例에依하야 幹部의 院內外總務에게 一任하기바란다』고 述한데 對하야 中村三之丞 中亥義男 矢野庄太郞 宮澤胤勇 木檜三四郞等 諸氏로부터 本案은 非常히 重要한 法案으로 將來 無産大衆에 對한 民政黨의 動向도 決定하는것이다 그러대 本日의 新聞紙等을보면 民政黨의 修正意見으로 傳하는바에依하면 本案의 趣旨를 沒却하는、最惡의修正이다 資本家勞働者에게는 依然치안코또 商工會議所와 其他에 阿諂치안코 獨自의立場에서 愼重審議를 進行하기爲하야 米穀法과 同樣으로 愼重히 取扱할것이다
라고하야 即時幹部及 院內外總務에게 一任하는데 反對意見이 續出하야 收拾하기困難하게되여 結局 小山院內主任總務로부터 反對意見은 諒解한다 今日本會議散會後 院內에特別委員과 議員과의懇談會를 開하고充分意見을 交換하야 處하겟다 고述하야 겨우收拾하엿는데 結果黨首腦部의 意向인退職積立金法案이 今日中에貴族院에送付되기는 全然不可能하게되엿다

中國側反日宣傳 若杉參事官抗議

北中密輸는高率關稅에依한 自然現象이라고警告

【南京廿一日發同盟】北中密輸問題及日本駐屯軍增强에關하야 中國側은 日本에抗議書提出하는同時에 內外에 積極的宣傳을 行하고잇슴으로 目下來東中인 若杉參事官은 二十二日에도 午前十一時外交部에 張群氏를 訪問하고此等問題에對한 中國側의 態度를打診하는同時에 密輸는 高率關稅에依하는 自然現象임에도 不拘하고 中國側이 故意로 過大한宣傳을行하는것은 決코 事態를圓滿히 解決하는所以가 아니라 도리혀 惡化식힐 憂慮가잇다고 警告를發할터이다

伊侵略結果確保는 軟弱外交의結果

國防調整相、軍需工業振興力說

英下院、日獨伊를非難

【倫敦二十一日發同盟】國防調整相인스키프氏는 二十一日午後英國下院의 國防討論에際하야 國防資源의開發、軍需工業振興方針을 闡明하야 左와如히述하엿다
國防遂行은 緊急資源의 充實에 邁進함에기를 期하고 軍需工業의充實에 努力하지안흐면안된다 그러데 過去四、五年間 英政府는 軍需工業施設을 全然等閑에附하고 돌보지안햇다 政府는至急 補償策을 講하야 特히 軍需資材의 充實에全力을다할方針이다 即 國內九百의 軍需工場과 交涉하야 軍需資材에對한 能力에 對하야 새로 檢討를 加한結果 政府는 三個年의 短期間內에 幾年의 缺陷을 補塡할수잇다는 結論에 到達하엿다
다음에 自由黨議員싱크레아氏는 파시즘의 橫行과 日本의膨脹政策及 獨逸政府의 再軍備工作等을들어 英國政府의 軟弱外交를 非難하야 다음과가티 述하엿다
國際情勢의 逼迫을 全國民에 警戒케함은 刻下의 急務이다 只今東阿의 一角은 파시슴의 鐵蹄下에 蹂躪되고伊太利政府는 近東地方에 勢力을 扶植할 有利를 確保케되엿다 一方 極東은 日本政府가 着着大陸發展政策을 遂行하고 歐洲大陸에서는 獨逸政府가 軍備에狂奔하고 잇지안흔가 伊太利政府의 侵略의成果確保는 一部 英國政府軟弱外交의 結果이다
다시 國防專門家의 先鋒 참스氏는 國防調整省設定을 非難하야 새로 軍需省을 設置하야 軍需工業의 振興을企圖할것을 提唱하야 左와如히 述하엿다
新設國防調整省은 그責任의重大에 比하야 權限不充分하고 新機關設置의 意義가 업다 只今全歐洲에잇서서는 到處에 再軍備가 大規模로 進捗되고 世界一角日本에서는 上下全力을 다하야 軍備에 邁進하고잇는 故로 以上事態에 鑑하야 軍需省을 新設하고 關係私企業과 連絡하야 軍需工業統制、振興에 邁進키를 切望한다

英殖民相辭任

豫算案漏洩責任지고

【倫敦二十一日發同盟】豫算案提出하기前에 茶稅及 所得稅의 引上方針을 外間에漏洩한結果 英國政界에 異常한問題를 惹起하게되엿다는데 殖民相토마스氏는 二十一日에 이르러 豫算案漏洩責任을負하고 마친내辭職을 決行하엿다고 傳하다 政府當局은 아직右報道를 確認하지 안흐나 토마스氏의辭職은 不可避라고觀測된다 호아前外相의 辭職으로 暴露한 볼드윈首相下의 擧國一致內閣은 再次重大危機에 直面하게되엿다

駐에警備軍撤收

伊、英佛兩政府에要請

【羅馬二十一日發同盟】伊太利政府는 에디오피아 帝國遠征工作이 完了됨에 따라 自國軍으로하여금 全國의 警備治安維持에 當케하기로 決定하고 外交機關을 通하야 英佛兩國政府에對하야 警備軍의 撤收를要請하엿다 要請內容은 左와如하다
一、따라 아디스아베바駐箚各國公使館의 警備隊아디스아베바、지부티 鐵道警備隊를 撤收하고 國內治安을 伊太利軍에게 一任하기바란다

伊國要請을 英政府에서一蹴

【倫敦二十一日發同盟】伊太利大使그란디氏는 二十一日午後 英國外務省에 반싯타트次官을 訪問하고 要請을 逐하엿다 席上에서 그란디氏는 아디스아베바駐箚英國警備軍의 撤收를 要請한것이라고 解釋되여다 반싯타트次官은 右要請을拒否하고 左와如히 言明한것이라고 解釋된다
一、英國政府는 시크族部隊를 아디스아베바에 派遣하야 英國公民保護에 當케하는것은 戰時非常狀態로서 同部隊를 永續하야 아디스아베바에 駐箚식힐意思는업다
一、英國政府는 아직 아디스아베바市의 治安은 完全히 回復되엿다고는 思惟되지안코 即時 駐屯軍을 撤收하는데는同意할수업다
그란디氏는 다시 伊太利政府는 에디오피아國內는 勿論 어느地域에잇서서나 英國의 權益을侵害할 意圖가업다는旨를 確言하고 諒解를求한것이라고傳聞된다

伊糧米輸送要請을 佛國鐵道會社拒否

【지부티二十一日發同盟】伊太利遠征軍은 佛國政府機關지부티、아디스아베바鐵道會社에 對하야 糧秣八百四十噸을 首都아디스아베바까지輸送하도록 交涉하엿스나 鐵道當局은 戰時中立法에 基하야 右要請을 拒否하엿다

部長級大異動豫想

今般總督府 大異動中 總督府課長及 地方部長級 異動은二十三日發令될터인데 上瀧人事課長은 勅任으로昇進하야 官房審議室首席事務官에 人事課長後任에는新員警務局警務課長이 轉出 警務局保安課長에는 丹下慶南警察部長 同警務課長에는 伊藤慶北警察部長이 轉入하고 警察部長의 異動은 左伯京畿가 京畿內務 下村平南이 京畿警察 井坂全北이 平南에 兵頭咸南이 慶南에 白石事務官이 平南內務에 下飯坂咸北이 慶北警察에 古市全南이 內務部長에轉하고 瀨戶新義州稅關長이 全南警察部長 山下江原道가 咸南에 筒井保安課事務官이 咸北에 宝田地方課事務官이 全北에 山下專賣局事務官이 江原道에 各其新任警察部長으로榮轉하게되엿다

辭令

朝鮮總督府事務官 大島良士
依願免本官
朝鮮總督府道事務官
正五位勳四等 河野節夫
任朝鮮總督府事務官(二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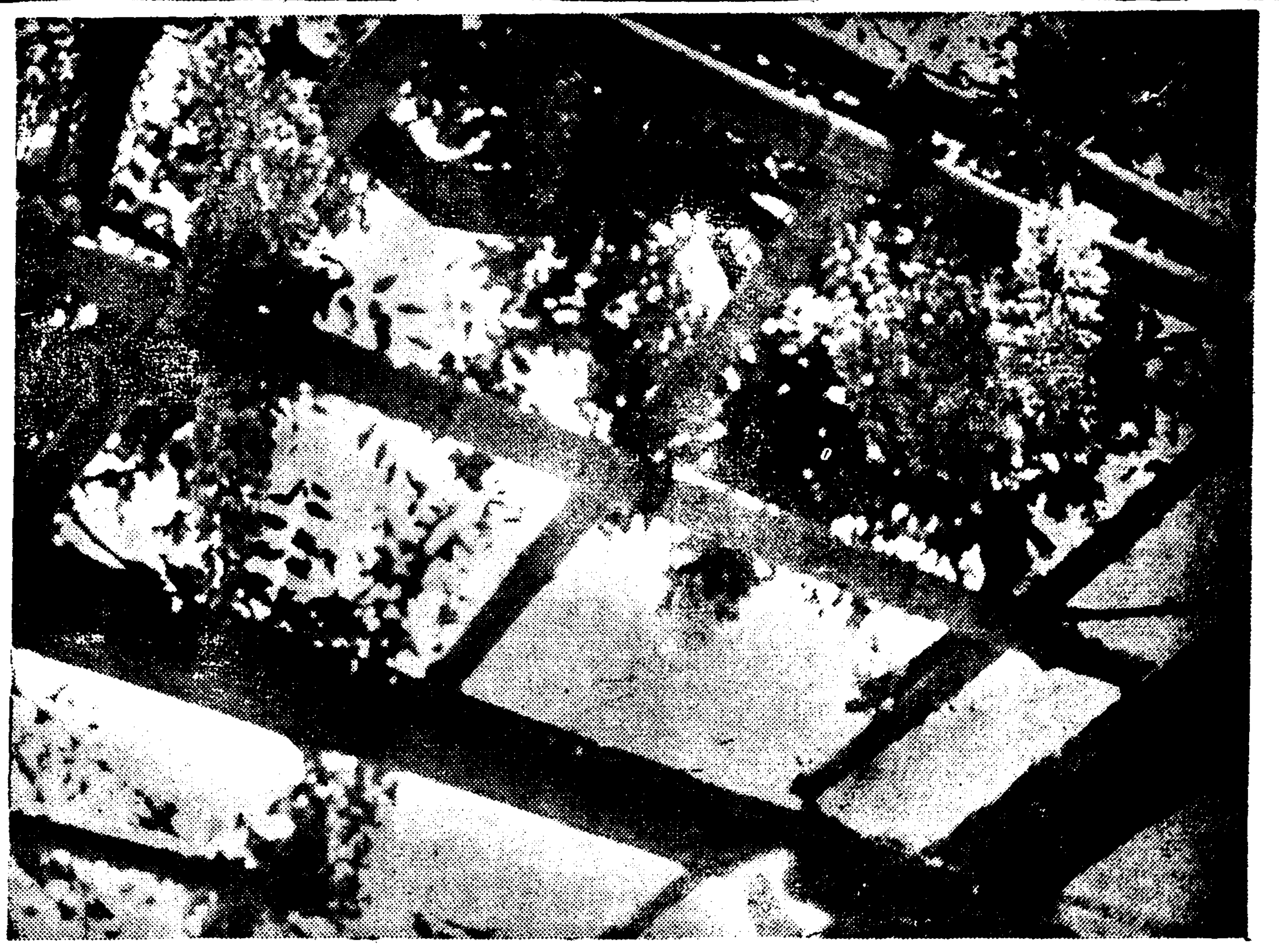
人事·集會

▲沈斗燮氏(全南共濟會常務理事) 上京人事次來社
▲徐椿氏(本社主筆) 講演次二十二日午後三時京城驛發列車로公州向

八面鋒

◇시골兒童의 京城修學에는 最低二十圓의寄附를 徵收。
◇그結果 府收入은一萬三千餘圓이 意外로 늘엇다고。
◇寄附하여도 輸學 못하는 兒童의 困境은 무슨方法으로解決식힐用意가잇는가。
◇定價表부친敎育이라하면 너무冷酷한評이될것이오 도적고사는글이라하면 過히 商品化한이야기。
◇카나다聯邦의 一部州를 北米合衆國에 編入할수잇는가 업는가를研究할 委員會를 만들자고 米議員이提案。
◇옷타와政府에서도 合衆國全部와의合倂可能性如何를 檢討하게된다면 더욱구경거리。

滯症藥中의王者—効力으로第一!
환신령
朝鮮賣藥
主治 食傷·食積·氣鬱·胸痛 腹痛·吐瀉·酒醉·船暈
藥價 十丸入 十錢 二十丸入 二十錢 六十丸入 五十錢 百二十五丸入 一圓 三百二十丸入 二圓五十錢
製造元 京城府黃金町二丁目九 朝鮮賣藥株式會社
환신령의需用期는來到하엿습니다·至今부터準備하십시오



藤넝쿨 구뷔구뷔, 꼿수실 주렁주렁! (오늘 창경원에서)

죽엄을 부르는 漢江!

自殺의 〃繼走〃

딸은남편이그리워, 어머니는딸을따라서 人道橋우의悲劇의連鎖!

안해는 사랑하는 남편을그리고 어머니는 귀여운 딸을—이러케 서로를 그리워하든 남어지 딸이 한강(漢江)에몸을 던저 죽자 그의 친정어머니는 머나 먼 시골서 이 놀라운 소식을 듯고 시체를 찻즈려 올라 왓다가 바랄것업는 세상을 비관하고 그만 딸의 뒤를 딸아 딸이 죽은 바로 그자리에서 빠저 죽은 눈물 겨운 참극이 잇다!

지난 스므하룻날오후 한시쯤되여 한강인도교 둘째〃피어〃에서 어떤중년 시골 안악네 한명이 뒤에서 말리려 달려오는 지나가든 사람을 뿌리치고 몸을 급히 날리여 빠저죽은일이 잇는데 소관 룡산서(龍山署)에서 사실한바에로보면 이는 충청남도 부여군옥산면상긔리(扶餘郡玉山面上基里)에사는 리영의(李永義)(四七)로 그가 낫서른 도회지에와서 일부러 자살을 하기까지에는 듯든 사람으로하여금 한옹큼의 눈물을 뿌리지안흘수업게 하는 애끗는 사정이 엿다한다

즉 리영의는 지난 해사흔날치 본보조간이면에 실린『상사병들린 시골여자의 투신자살』의 주인공되는 리성무(李聖武)(二〇)의 친정어머니로서자긔의 애끼고 귀여워하든 딸이 다섯달전에 남편되는 김홍순(金興順)과 함께 서울로 돈버리를하려 올려간이래 아모 음신이업시 나려오다가 얼마전에 갑작히 간곳모르든 남편을 그리워든 끄해 자살햇다는 놀라운 부고를 밧고 도보로 자기집을 떠낫지 닷새만인 지난 스무날 아침에 서울에 당도해가지고 먼 나그네길에 지친다리도 쉬일사이 업시 그날 오후세시쯤되어 룡산서 사범계에 나타나 이제는 이세상사람이 아닌 딸의 그림자를차저서 한바탕울음에 사모친주엇의구로 사정을 하소연한다음 그이튿날되는 어제 나제 자긔의딸이 죽든 한강철교의 둘재〃피어〃바로 그자리를 떠돌아 차저가서 딸의 뒤를 따러간이것이라한다 그러고 이 눈물의 어머니의 시체는 아직 찻지못한채 잇서 룡산서에서는 사람을 놀어서 지금 한강연안을 떠돌어 찻는중이라한다●

解雇青年은碎頭 雇女少婦는未遂

한강(漢江)에서 이러난 자살미수(自殺未遂)사건두가지—▲이십이일오전두시반쯤 거동이수상한 청년이『한강』인도교우에룰배회하는것을 동인도교공사장(工事場)에서 일보는 전전신의(田田信義)가발견하고 자살이나 하지 안호려나 의심하고 전긔인도교 우에서 주목을 하고잇든중 그청년은 전긔『전전』이 딴곳을 보는틈을 타서 제일인도교 제일피어ㅡ에서 그다리아래의 모래우바레 돌연히 떠려저 자살을하려하야 두부에중상을 밧고 인사불성이 되여방금 철도병원(鐵道病院)에입원가료중이다 그청년은 시내약초정(若草町)백삼십번지에 거주하는조리차차(初瀨次次)의동생 초뢰무일(初瀨茂一)(三)로 판명되엿는데 자살하려든 원인은 최근실직(失職)하고 비관한남어지 자살하려든것이라한다

▲이십이일오전한시경 시내공평정(公平町)칠칠번지 김효선(金孝善)씨방 고녀로 잇든박금자(朴錦子)(一七)는 한강제이인도교우에서 투신 자살하려는것을 동인도교 공사장(工事場)에서 일보는 전전신의(田田信義)가 발견하고 구조하엿는데 룡산서(龍山署)의손을 통하야 전과 고주김효선씨에게 신체를 인도하엿다

遊園池畔의怨淚

두어린에와함께自殺未遂된 青春寡婦의斷腸劇

듯기에도 가련한 청춘과부의 눈물자어내는 애화— 시외 뚝섬유원지(纛島遊園地)에는 이십일밤아홉시쯤 되여 갓난아이는업고 좀큰아이는 손을끌고 무어신가 수심에 잡기여잇는 절믄녀자가잇는것을 야순중의 그곳주재소원(駐在所員)이 발견하고 전후사정을 무러본즉 그는 두어린것을 먼저압세우고 자긔도 이세상을 떠나버릴라든 무섭고도 가련한 사정을 눈물과함께 호소하엿다고 한다 자세한내용을드러면 이녀자는시내봉래정(蓬萊町)에 사는 리씨(李氏)라는 스물여섯살된 과부로 지금으로부터 륙년전에 김모(金某)(三七)와 결혼한 그들은 녀러지는듯하나마 그날그날을 단란하게지내오면서 금년에 네살된아들도보앗스나 하날과 가티 밋든남편은 운명자를남겨노코새해도업마남지아니한 작년섯달에 병사하고보니 약한절믄녀자의 외손으로 두어린것을 데리고 사려가기는 이세상이 넘우도 냉정하다는 쓰라린경험을 한그는 드듸어최후의 수단으로 생명보다도 더사랑하는 두어린것과함께 저세상으로 떠날라고 결심하고 세상사람의 눈을피하야 이곳을 차저왓든 것이라고한다

火災로重傷

【瑞興支局電話】 이십이일새벽세시쯤되어 경의선서흥군 신막역전신막리(瑞興郡新幕面新幕里)백일번지 리창봉(李昌鳳)의집에서 경방사리를하고잇는 림권상(林權上)(二〇)의 어나서 이불 요가 타는바람에 때마침술이 몹시취해서 곤히 잠들고잇든 림권상의몸이 샛밝아케 타서 중상을 바뎃스므로 곳그 부근병원에 데려다가구호시켯는데 생명이 위독한중이다。 원인은 림권상의안해가 그동리어떤집으로 마실을간동안에 림이 밧게나가서 술을몹시마시고 도라와서 켜노핫든 람포불을 잠김에 밥시길로차서 어퍼트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불을 잡은카닭에 별반손해는 업는모양이다

團體動靜 (二十二日)

▲平壤崇實普通校 二百名 開城行
▲全州第一普通校 九十名 入京
▲士城普通校 百三十五名 入京
▲江西普通校 六十四名 仁川行
▲平壤農業校 四十一名 平壤行
▲安州農業校 三十八名 平壤行
▲仁川第一普校二百二十名開城行
▲仁川第一普校二百五十名釜山行
▲瑞興普通校 百二十八名入京
▲開豊郡北普校 百八名 入京
▲公州普通校 七十八名仁川行
▲東萊始興校 百二十九名 水原行
▲仁川第一普校 一百五十名 退京
▲大邱師範校 八十五名 奉天行
▲鐵城公普校 四十名 退京

出獄門前에서 警察에또被捉

全北教員事件鄭禧冕

【全州支局電話】 지난소화팔년말월에 전북교원적화사건(全北敎員赤化事件)에 관련되여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두해를밧고이래 전주형무소에서 복역중이든 정희면(鄭禧冕)(二〇)은 형긔를마추고 지난이십일에 만긔출옥이되엿는데 형무소문을 나오자말자 문밧게서 미리 지키고잇든 전주서(全州署)원의손에 다시체포되엿다。 그원인은 동경(東京)서 발생된 어떤중대사건에 관련되엿다는 혐의로서 당일밤으로 동경으로 압송되엿다●

冷害救濟工事 散布勞賃七割

도내에 매년과가티 발생하는 랭해리재자(冷害罹災者)를 구제할 목적으로 함경남도(咸鏡南道)에서 하는 토목사업(土木事業)은 금년도에잇서서는 총공비 십칠만륙천구백여만(국고보조 십사만일천오십여원)으로 도내 등외도로건설공사(等外道路建設工事)를 시행하야 총공비의 칠할을 로임으로 허러노으며 연인원으로는 이십만륙천명이라 한다。

天氣豫報

槪況 七五四미리의低氣壓은 黃海北部와 南滿洲에잇서 東北東으로進行中이며 七六二미리의高氣壓은 本州南東海上과北海道에 퍼저잇고南朝鮮은 흐리고 비가조금내리는 곳도잇스며 琉球諸島는 雨 東部西部와東北地方北海道는 흐리고 中部와 樺太는개여잇다

豫報 今夜京城地方은 흐리나 明日은 개인다
京畿全區도同一

昨日最高	一八、九
最低	八、〇
今朝最低	一〇、七
今日正午	一九、〇

赤行囊中의現金 八千八百圓盜難

晋州局서山淸으로遞送中 局員七名引致取調

【晋州支局電話】 이십일일 오전 일곱시반 진주우편국(晋州郵便局)에서는 일반지불에쓸 현금팔천팔백원을 아홉개의 적행낭(赤行囊)에 갈나너허 우편자동차에 실어 산청우편소(山淸郵便所)로 보내엿는데 한시간뒤에 그우편소에서 밧고여러보니 안의현금은 비고 빈주머니뿐인것을 발견하고 전화로 전긔우편국에급보를 하엿다 그리하야 근래에드문괴도난사건을 안 진주서에서는주임이하일곱명의 국원들을인치하고 지금엄중취조중이다

【釜山支局電話】 작이십일일오전일곱시반 경남진주 우편국(晋州郵便局)으로부터 경남자동차회사 (송자동차)로 경남산청우편소(山淸郵便所)로 체송한 적행낭(赤行囊)한개가 어떤자에게서 절취되엿다 그행낭안에는 조선은행삼원권칠백오십장과 일본은행십원백매 합계팔천오백원외에 서류와편아후통이 들어잇다 이급보를바든 진주경찰서(晋州警察署)에서는 피의자로서 전긔자동차운전수외 다섯명을 인치하고 엄중취조중이나 진범인은 아즉 불명이다

醫師第二部合格者

오월에 시행한 의사시험(醫師試驗) 제이부 시험 합격자는 이십이일 발표되엿는데 그씨명은 다음과까다

田中茂 尹明學 徐光穆 權寧準 大塚賢吾 辛益均 李敬信 吳玉麟 尹學洙

욱어진綠陰속에 積雪이三尺餘!

咸北冷害地方의怪候

【咸興】 함경북도내의지대에는 벌서오래동안을 한발이 계속하야 농작피해를입은 일반농가에서는매우걱정하던중 마침지난 십륙일부터 날이흐리기시작하더니 십구일에이르러 비가오기시작하얏스나 갑산(甲山)길주(吉州)방면의 냉해지대에는 갑작히 긔온이 돌변하야 눈이 나리기시작하야 하로종일 나리는 눈비는 마침내 산천가목의 적설을 이루어 동해(凍害)를 입은 맥작은 전멸상태로서 련삼년간의흉작으로울고잇는 이재민들은 또다시실망중이라고한다

朝鮮○○軍 昌城署에被捉

【新義州】 창성경찰서(昌城署)에 잡힌 조선○○군한명=관전현제삼구교정자(寬甸縣第三區橋頂子)계인찬(桂仁瓚)(三五)은 소화칠년부터 조선○○군에 가담하여가지고 동현 삼도양차(三道陽岔)에 이주한 농민들에게 군자금을 강요하는한편 동년사월십륙일 동지 삼십오명과가티 회인현리차구에서 만주인 경찰대를 습격하고 총긔 탄약기타를 강탈한외 전후 두차례에 현금 삼백오십원을 강탈한사실이잇는데 조선에잠입한것을 이십일창성경찰서(昌城署)에서 검거하야 목하엄중취조중이다

十字橋上에鮮血

四歲幼兒트럭에即死

이십이일 오후령시 오십팔분경에 시내 중학동(中學洞)삼십삼번지압 십자교(十字橋)우에서 시내 교암정(敎岩町)에잇는 일환(日丸)채석장의『트럭』운전수 장봉석(張鳳錫)(二五)이가 운전하고가는 경(京)오천이백십오호화물자동차에 시내사간정(司諫町)일백이십륙번지 배경식(裵敬植)의 둘째아들 재철(在鐵)(四)이가 과자사려가다가 치여서 그대로 즉사하고 말엇는데 소관 종로서에서는 박(朴)경부등이현장에나와 림검한후 가해자를엄중취조중이다

豫防協會支部創立

【青陽】 지난 십칠일오전열시에 당지무도장에서 결핵예방협회청양지부를 창립하엿는데 역원은 다음과갓다

支部長 吳泰世氏 顧問 蔡奎恒氏 外三人 理事 松本文生氏 評議員 李稷鎬氏外四十九人

瀆職한釜山西面職員 十九日檢局送致

土地拂下에不正事實確認

【釜山】 계보=지난 사월초순경부터 부산경찰서에서는 부외서면사무소에 불정사건이잇는것을 탐지하고 면장손정은(孫廷垠)(五〇)회계 손고덕( )( )면협의원 신필은( )( )등을 검거하야 창옥(田實玉)(三〇)등을 검거하야다가 엄중히 취조를 계속하고 잇던바 지난 십구일에 취조를 일단끗내고 일건서류와함께 작좌로부산검사국에 송국하얏는데 그들의범죄내용의 대강은다음과갓다 면장손정은과 회계손고덕과 면협의원 신필은은 각자의지위를 긔회로 소화칠년팔월경부터 동십년시월경까지 계속적으로 동면내의 각리에잇는 면유지(面有地)를 도지사급군수의 매각인가를어더서 경매할때는 그들이 공모하야 협하게다인의 명의로 매수케하얏는데 이로말미아마 동면의손해는 약사천오백원이라하며 또좌수영(左水營)에서해운대(海雲臺)로 통하는등외(等外)도로개수공사에 정부어자 전찬옥에게서 륙배원을수리한 사실등이라한다

爲替를配達夫가橫領

우편국에 림시인부로 취직하엿다가 그중요한 근무에 신용을 어더 우편물배달부로 승진한것을 기회로 서류(書類)우편물을 뜨더 그속에든 위체(爲替)를횡령소비하며 갑시의눈을 피하여단기다가 드듸어 범행에 걸려들고만 우편배달부—본적을 황해도신계군(黃海道新溪郡)에두고 현재 시내죽첨정(竹添町)삼정목이백팔십일번지에 사는 서대문우편국 배달부 리창규(李昌奎)(二七)는 지난삼월부터 사월오일까지에 전후여덟번에 궁하야서 류우편물속에 들어잇는 우편위체 약백원을 교묘한 방법으로 횡령하야 사용하다가 실구일에 드듸어 서대문경찰서에 체포되고마럿다

運動競技

올림픽籠球 京城서一戰

來月二十日에入京

【東京에서 鄭殷鉉(電話)】前略…우리一行은 지난二十日까지 第一期合宿練習을마치고 앞으로 五日間을休養한後 오는二十五日부터 最終練習을 始作할豫定입니다

이번 올림픽에出征할 本隊(各種競技選手)는 六月二十日에 東京을 떠나기로 되엿스나 우리籠球팀만은 三日間을앞당기어 六月十七日에 出發하야 途中京城에서 一次戰을 行하고 六月二十日後三時三十分 京城驛着列車로 下車하야 二十一日午後에는 京城軍과 作別의 一戰을 交할作定입니다 그리하야 二十二日午後三時本隊와합께 京城驛을 떠나 一路戰地伯林으로向하기로되엿습니다

平壤蹴球大會 第一日續報

關西體育會主催의 第十二回全朝鮮蹴球大會 第一日인 二十一日의 各團體熱戰觀戰은 다음과 갓다

◇實業團第一回戰
木工 組合2:0平安 鐵道
林昌 商會3:0內鮮自動車
東洋 製絲2:0大吉 고무
◇同第二回戰
平鐵俱樂部3:0兵器 製造
◇靑年團第一回戰
高麗 俱6:0平 明 俱

女子卓球大會에 平壤에서遠征

八團體五十名參加

朝鮮女子體育奬勵會主催의 第四回 全朝鮮女子卓球大會는 明二十三日 午後一時부터 鐘路中央基督敎靑年會館에서 열릴터인데 參加申請은 二十一日 正午까지로 마친바 平壤正義女高普를 비롯하야 同德 梨專 梨保 京保 中保 世富蘭偲看護婦養成所, 同進軍等의 八團體五十名이 參加하엿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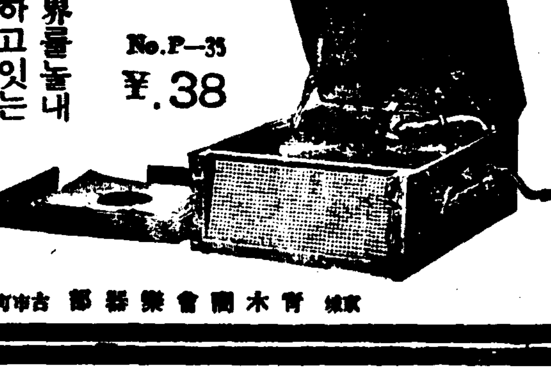
籠球代表合宿終了 朝鮮三選手健全

올림픽籠球代表選手 第二次合宿에 出場한 李性求, 張利鎭, 廉殷鉉三君은 지난五日부터 府立高等學校室內外코-트를使用한바 十九日의練習을 마치고 二十日에 解散하엿다는데 第二次合宿練習은 第一次合宿練習의個別的完成을團體的으로 完成하기에 努力한것으로 三選手코-치의指導와 各選手의 精進은 所期의 目的을達成하고잇는바 朝鮮서 出發한三選手는 더욱 元氣旺盛한가운데잇다한다

都市對抗野球의 西朝鮮第一次豫選

大每主催의 第十回全日本都市對抗野球大會에 派遣할 西朝鮮第一次豫選은 來六月中旬부터 平壤公設球場과 鐵道球場에서 擧行하기로되바 參加팀은 新義州 沙里院, 海州, 兼二浦, 日穀、平壤等이라한다

補精強壯劑 樺太廳官營採取 眞品 海狗腎 請求次第說明書進呈 釜山府草梁町三二三ノ三 合資會社 大洋貿易社 電話二二一一番・振替釜山七九二二番

可驚할 立体的再生音!
パラゴン

世界를놀내게하고잇는 堂堂한國産器임니다! 꼭한번試聽하시라
No.P-35 ¥.38
PARAGON
京城 靑木商會樂器部 古市町

金銀 金銀賣買合資會社 地方注文代金引換要先金 京城南大門通一ノ一九五 電話本②一三八〇番 振替京城一三四八〇番

奇人奇聞의片信 동양唯一 觀相師 新運命의開拓은 姜南月先生에

강남월선생
姜南月은 果然엇더한才子인가 그는그의빗나는두눈이 사람을대하는즉시 過去現在未來를 선뜻판단하는 朝鮮이 나흔 天才觀相家이다 하로밤비 先生의指導와訓數를밧고開運成功과 幸福을事前에圖謀하야 청춘의煩悶을해결하라 前道方針과適業指示며、金鑛期米의成功如何、結婚及夫婦관계의번민、其他訴訟、就職、行年月評、人事百般모든問題에永遠한責任으로親切詳論◇地方은料金二圓과生年月日時分明記送하면 面觀於無形하는先生은奇문斷易法으로詳細答送하오 寫眞添付尤好 但、相보러올때에 男子는술먹지말고 女子는분바르지말고오시오 ◇京城府昌信町六百八十七番地 ◇東大門越便公衆便所側골목入 姜南月觀相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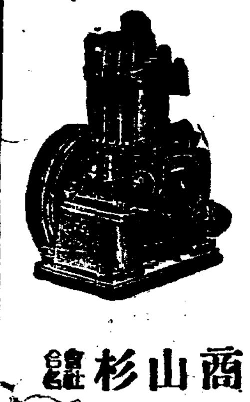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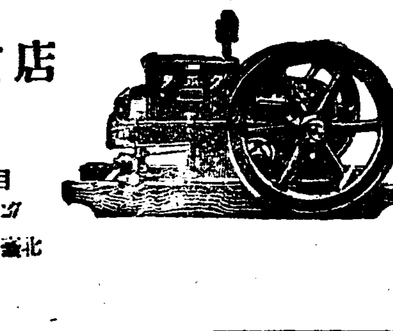
外科 肺胃腸病 小兒病 皮徽科 天日醫院 京城府橋南町一四〇 (赤十字病院越便) 院長 李重樂 電光③二〇四七番

朝報案內 求婚 本人(二八才)은 初婚으로 中學程度商業에 有意한 女性(一九-二五)을 求함 希望者 履歷書及寫眞添付 要照會 忠南唐津郡合德九陽市 主婚 安任基

讓渡 電機器具商店 實價讓渡、希望者來談 樂園町二〇三 電光一七三九

恩給 長期擔保貸付 他에比較할수업시有利信用과迅速을特色으로照會하시요 京城府授恩町一六〇 鄭商會

現代婦人洋裝 ミヤコ 京城鍾路一丁目 電光一六五五

クボタの… ディーゼル機関 石油發動機
日英米獨佛伊特許アークロ式

農林省認定品 商工省指定優良國産品
(文獻送呈)

杉山商店京城支店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二五 電話本局長 0882番 4784番
本店 大阪市西區立賣堀南通町二丁目 電話新町 901・902・903・904・3127
支店 東京・名古屋・神戸・大連・奉天・臺北 札幌・八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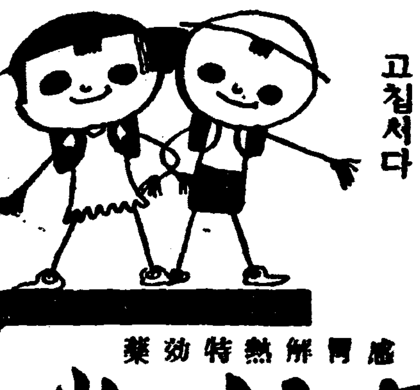
第二期男女學生大募集 (改正學則要二錢) 南大門自動車學校 ◎第一實習場(敦義町) ◎第二實習場(阿峴里) 市外各地 校舍 京城府太平通二丁目三六七番地 電話本局②〇八六七番 (振替二二〇五六)

綠陰의郊外散策은 京軌遊園地로 東大門—遊園地間 二十五分(三十分마다)發車 車賃往復入場料共 二十錢 團體는 特別割引에應함 修養散策에絶好한綠林 大本山 奉恩寺로 遊園地오시면 荒川食堂으로 納涼宴會席完備無料休憩所 引網・投網・名由도具備 京城軌道 東大門 電光二九六七 二九五〇

外科 X光線 醫學博士 鄭求忠 (入院室完備) 京城鍾路三丁目十六、 電話光化門六八五番

農林省副業課奬勵 軍手製造 專屬製造家募集 十一年度高速度能率機 豐國軍手京城營業所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九十番地

고마시 江華純苧麻布 江華産業組合


손에손을잡고원기잇게놉시다! 感氣가들면實効散을服用코速히고칩시다
感冒解熱特効藥 實効散 天然堂 NO.141

本舗製品

밤이나낮에나開放하라

結核

グアヤコール
구 아 야 콜

ブルトーゼ
부 루 도 ㅡ 제

現今結核의療法으로써는 아직것確實한特殊療法은업지만 結核의治療에當하야 가장重要한것은病症이過히進行되지안어슬제 될수잇는대로 早期에治療할것이며發病初期에充分한治療를 施行하면쉬이 治癒되는것입니다

一般治療法의 原則으로써는

充分한日光
新鮮한空氣
充分한榮養

以上三點을滿足식힐方法을 講硏할바이며 그中에도 가장 緊要한것은 榮養療法입니다

卽 結核療法中 가장 重要視되는것은食餌療法인바 그를實行함에第一의障害는食慾不振이며 食慾不振으로써 榮養不良이되기쉬우며 身體의抵抗力이弱하게되며, 抵抗力減退로依하야 症狀은惡化되며 혹은 潛在性의結核이 活動性이되야 結核症狀을이르키게됩니다

要컨대 結核療法의根抵가되고잇는身體抵抗力의强化以外에는 더方法이업는것입니다

구아야콜ㅣ부루도ㅣ제는 治療와榮養充實의作用을兼備한 特効劑로부루도ㅣ제는 胃液의分泌을旺盛케하야食慾을增進식히며 또한造血아우르호르몬의作用에 依하야 血液의循環과新陳代謝를活潑케하며 榮養素의吸收를容易하게하여 全身의抵抗力을强化식히며구아야콜ㅣ은 結核菌의活動을阻止식혀 胃腸의醱酵를防止하며氣道粘膜의 分泌及炎症機轉을調整하야 喀痰을液化하야漸減케하며漸次로 健康에引導하는作用을具有하고잇슴니다

グアヤコール	小瓶	金二圓六十錢
ブルトーゼ	大瓶	金四圓三十錢

補血強壯 骨造劑	單味ブルトーゼ	小瓶 / 大瓶	金二圓 / 金三圓二十錢
神經性 疾患特効劑	アルゼンブルトーゼ	小瓶 / 大瓶	金二圓三十錢 / 金三圓七十錢
腺病質特効 補血強壯劑	ヨードブルトーゼ	小瓶 / 大瓶	金二圓三十錢 / 金三圓七十錢
健胃補血 強壯劑	キナブルトーゼ	小瓶 / 大瓶	金二圓三十錢 / 金三圓七十錢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東京日本橋區本町·京城府西小門町

醫學博士小野寺[illegible]先生著
『呼吸器病의養生法』
申込次第進呈

◇저런빗갈을살걸!!◇

양산은 여름호사 빗갈을 잘골라야

살결도보고옷빗도보아서살일

대체로원색이조타

사람은 제 아모리 제 고집이 센 사람이라도 부지중 여럿이 우하고 서드는 바람에 딸리어 들어가지 안 할수가 업는 모양입니다。괴도 개도 모도다 파라솔을 버티고 나오니 그냥 덜렁 덜렁 다니기가 좀겨면쩍기도 하고 허술하기도 하야 거리에 나서기가 거북하야집니다。그러나 이왕지사 파라솔을 바들 바에는 좀 모냥이 나는 것을 바더야 안합니까? 가튼갑세 다홍치마라고 끌도록마즌것을 사서 바들 맛이야 업지 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냥하게 나는데는 갑세 잇지안코 물건에 잇습니다。그물건도 사람을 딸아서 이런것이 조키도 하고 저런것이 조키도 하고 다각각 빠른 것이랍니다。

문의라든지 모양보담은 그 빗갈이 제일 중요합니다。요사이들 문의나 모양에만 치중하고 빗갈을 대수로이 알지안는것은 잘못입니다。그런데 그빗갈로 말하면 첫재철이 여름이란 것도 생각해야 되고 둘째 자긔의 살ㅅ비치 어떠라는것도 생각해야 합니다。그냥 노코보아서 조타고 살다가 밧고 보아서 우스운 수도잇고 남이 바든것을 보아서 조타고 샀다가 자긔가 밧고 보아서 시원치 못한수도잇습니다。그뿐이 아니오라 자긔로서도 이런 옷을 입엇슬때에는 두말업시 척 어울리든 것이 저런 옷을 입엇슬때 어쩐지 좀 섬섬그래해지는수도 업지 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솔의 빗갈을 선재로는 의복의빗갈과까지도 조화시키지 안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

철로보아서

(一)최최한 빗갈보담은 명냥한 빗갈이 조흘것입니다

(二)간색(間色)보담은 원색(原色)이 조흘것입니다。

살빗으로보아서

(一)검은 얼골이나 누른 얼굴에 푸른빗갈을 바더서서 살비치 녹석(綠色)으로 보이어 재미업습니다。

(二)힌 얼골에 하얀 빗갈이나 새파란 빗갈을 바더서는 살비치 창백(蒼白)해 보이어 재미업습니다。

그러니까 그두가지를 종합하야서 본다면

(一)누른빗、불근빗 차(茶)빗 등이 첩에도 마즈려니와 살이 걸어서 건강해 보이는것이 조습 다

(二)그중에도 누른빗갈이나 불근 빗갈의 계통이 조코 또 그중에서도 불근빗갈로 부터 부홋빗갈 그중간의 원색이 조습니다。

×

파라솔과 옷의 빗갈을 마치는데는 두가지의 방법이 잇습니다。

(一)붉은빗갈이면 붉은 빗갈、누른빗갈이면 누른빗갈과 가티 동일한 계통으로 조화시키는것

(二)불근빗、오렌지ㅅ빗、누른빗등의 더운빗갈에다가 푸른빗、녹색빗등의 찬 빗갈로 조화시키는것。

그두가지 방법에서 몬저ㅅ것은 수수하고 나종ㅅ것은 화려한 편으로 다각각 자긔의 취미를 쫏치지만은 절대로 금할것이 두가지 잇습니다。

(一)원색의 파라솔을 밧고서 간색의 의복을 입어서는 고만 의복이 파라솔에 눌리어 아조 우습게 되여 버립니다。

(二)간색이 그러커니 힌 의복에 이르러는 더 말할 나위가 업습니다。

×

우리네들은 어째서 그런지 여름에 회색옷을 잘를 안입습니다만은 최최지 안흔 회색은 다른 빗갈에 눌리지도 안코 그러타고 다른빗갈과 맛서지도 안 하서 썩 조흡니다。만일 회색옷을 입는다면 불근빗 누른빗 푸른빗 녹색등의 모든 파라솔과 잘어울리게 됩니다

童話

임금님의귀

(三) 崔秉和

임금님께서는 입부러 목소리를 부드럽게하시고

『얘 그러케 염려하지말어라。내 머리를 깍거준뒤에는 즉시 돌려보내주마。그대신 네가 만일 이곳에서 이상스러운것을 보드라도 결코 다른사람에게 이약이하여서는 안된다。만일 이약이를하게되면 너를 잡어다가 바다속에 너허버리겟다』하고 말삼하시엿습니다。리발사는

『자세히 알앗습니다。목숨만 살려주신다면 엇더한것을 보든지 결코 입밧게 내지안켓습니다。』하고 맹서하엿습니다。그래서 리발사는 얼마쯤 마음을 놋코 임금님의 길게자란머리를 싹둑싹둑 깍기시작하엿습니다。

그리고 점점 머리를 깍거가는동안에 지금까지 보이지안튼 임금님의귀가 나타낫습니다。리발사는 깜작놀낫습니다。그것은 임금님의 두귀는 사람귀가아니고 커다란 말귀엿습니다。

리발사는 무심코 악소리를질를번한것을 얼는참고 임금님의 귀는 말귀이므로 지금까지 리발사가 임금님손에 죽은것을알고 자기는 마음을 가라안치가지고 머리를 다깍은다음 뒤소제까지 깨끗이하엿습니다。

임금님은 펵깃버하시면서 만흔상을주신다음 이리발사를 돌려보내시엿습니다。

리발사는 마치 호랑이굴에서도 망한것처럼 조화하면서 집에도라갓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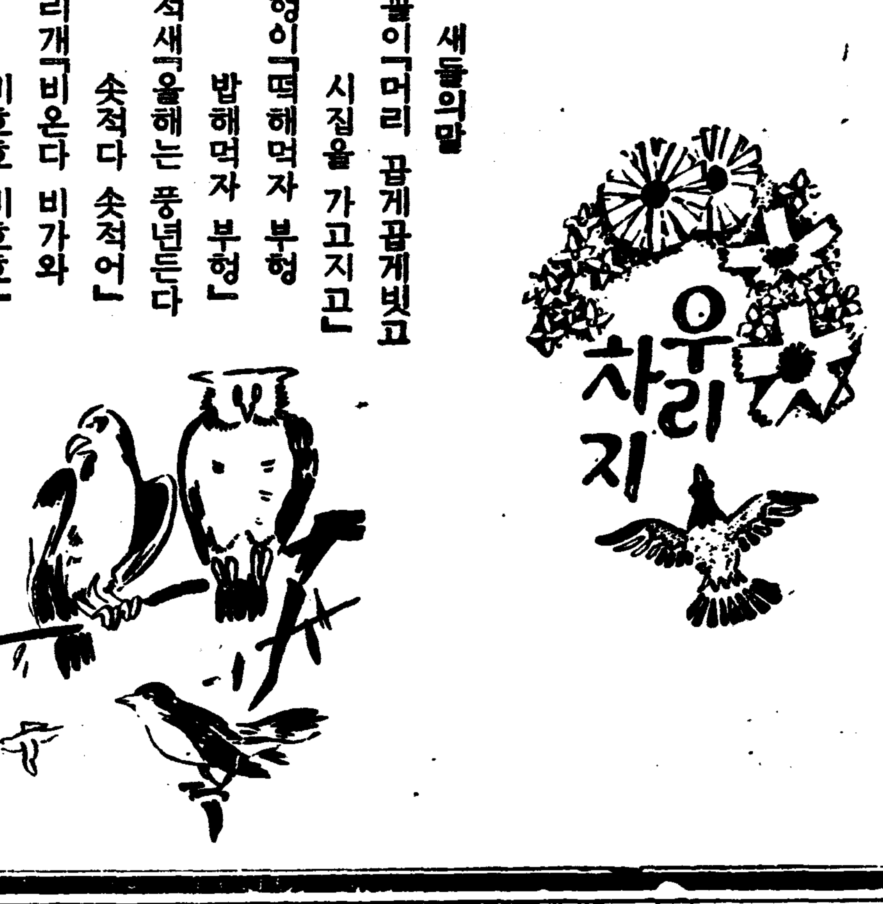
어머니는 아들이 엇더케되엿나、만일 지금쯤 죽지나안헛슬가하고 염려하면서 안지도 서지도못하고잇는데 아들이 급히 도라와즘으로 즐거워하면서 깃버하엿습니다。

그러나 깃버한것도 처음하로뿐이고 그잇흔날부터 외입인지 아들은 병이들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엿습니다。외아들이므로 어머니의근심은 여간한것이 아니엿습니다。즉시 의사를불너보엿습니다。의사는 고개를 기우리고 잇드니

『이것은 참 괴상한병이다。우리들의 약으로 곳칠수업다。너에게는 무슨 하고십흔말이잇는데 그것을 말할수가 업서서그것이몰켜서 병이되것이니깐 한마듸만 시원스럽게 말하면 너의병은 곳칠것이다』하고 말하엿습니다。아들은 고개를 꼿뎌어리면서

『그럿습니다。그러나 저는 한마듸라도 입밧게내면 죽게됩니다。』하고 말하엿습니다。

『그러나 남이듯지못하게 한번 말하면 조치아느냐 그것도 할줄몰는다고하면 내가 조흔방법을 아르켜주지』하고 다음과가튼 방법을아르켜 주엇습니다。



새들의말

꾀꼴이「머리 곱게곱게빗고
시집을 가고지고」
부헝이「떡해먹자 부헝
밥해먹자 부헝」
솟적새「올해는 풍년든다
솟적다 솟적어」
쇠리개「비온다 비가와
비호호 비호호」

(글쓴사람 최창서)

短篇小說

灰色街 【十一】

李石薰 作
申哲秀 畵

저녁여섯시 약속대로 꼭시간대서『에로알로가니까 최군은아직 오지안헛섯다。미심끼로 『로-자』에 전화를걸고 물어보니까『나미꼬』가 나와서 나제대겨갓는대 아마노ㅣ보이·미-르』에잇기 쉬우리라 한다 곳그리로 다시 전화를걸엇더니 역시 거기잇섯다。

『자네 약속이젓나』

『아냐 니-나가 되게알는대서 문병와섯서곳가지』

『웬마치 해두구 빨리오게』

『그래그래 곳갈테야』

——이런작자가 삼십분이나지나도 오지안는다。엇그제저녁웬 키장다리놈팽이하고『회신』에 저녁먹으러온걸 봣는대 그사이의『니ㅣ나가 무슨맘을 그러케가엽슬까 생각하며 [illegible] 처고는 고급에속하는『[illegible]』라이놀 걸엇다。머언 꿈나라로 어끌듯이 첼로는 아름다운 멜로듸ㅣ를 토한다。그것이 끗날지음해서 최군이 헐네벌떡어리며 들어왓다。여페는 책을두어권 끼고잇섯다。언제든지 놋치안는 최군의 버릇이다。

『미안하이 ——느저서……』

『니ㅣ나가 어쩔알는대?』

『폐가 나쁜모양이야』

『그거안됏네그려』

『회색의거리에 또 회생자가 나나보이 살라고살라고 애쓰는 어여쁜 비둘기가……』

『자네 센티멘탈리즘은 구격이 덜맛네……그건하여튼 무슨일이도생겻나 니ㅣ나의갑이라도 좀변통해자는 공론인가?』

『안야 그것두 조흔일이지만……』

여관을나가게되어 오늘저녁 이사를해야겟스니 나더러 좀도와달라는것이엇다。

『오늘이 스무닷새니까 자비엽금타갓네그려』

『마이나술세』

『밥벌할거어부……』 집싹만 좀들려주게』

『고맛정도면 염려말게 어듸루 옴길라나?』

『아주 훌륭한델 발견햇서』

어떠잡지에다 여관한구석에서 쓸쓸한호라비살림하는 신세한탄을 햇더니 그게뜻밧게 어떠부르주아미망인의 눈에걸렷다。과부신세는 과부가안다는격으로 최군의신세타령이 그미망인의마음을 깁히때렷던모양이다。

그잡지가 시장에나와퍼진지 얼마안되어떤날아침 늣도록자는때 웬보지도안턴게 집에가와서 최선생최선생하고 찻는다。그래『파자마』바람으로 툇마루로나가니까 글조각을전해준다。——즈이집에 뷘방이잇스니 조용시거던 와서 잇스라는것이엇다。S정××번지B……。

이거웬호박이냐ㅣ최군은 줄줄듯이 기뻣다。곳 감사하다는뜻을 적어주고 오후한시쯤 차저가겟노라하여 게집애를 돌려보내다

『가보니까 굉장한 저택인데부인이 마당보바리가튼 아주고상한 중년미망인이야 이야말루 소설적이 아닌가 자네두 오늘저녁은 나허구가치먹세』

우리는 전등이『나쯔미짱』처럼 힌멀금한 황혼의거리로나가 구르마군을 하나 다리고 안국정에잇는 그의여관으로갓다。집이라고는 처음구루마에 한짐도안되엿다。이부자리『고다쯔』일보한로、책수십권、그리고 방한편벼에 청석맛게 걸어두엇던 커다란 집신짝——그걸아주소중하게 헌신문지에싸서 짐사이에끼웟다

『그건대체 멀허는건가?』

『오래 이것은 조선에 업넘가 허허……』

동경과 그큰방에서 거이성장하다싶히한 최군은 오래간만에 조선나와서 가장 정답게 보이는것이『고무신』에 천대를밧고 먼산골로쪼겨가 하염업서 옛날의그림자를 남겻슬뿐인 그소박한백성들의 오랜반려자(伴侶者) 집신짝이엇고、백의(白衣)이엇스며또 조개보시집이엇다

『오래 대화혼에 저젓든나를복고(復古)시키기위해서 저놈을떡 걸어노코 시시때때로 바라보는것이라네』

그리고는 또빙그레우섯다。그것이조곰도 거즛갓지안코 진실잇게보엿다。저런 더퍼리에게도 이런 고흔심정이 잇섯나십허서 다시한번더 그의얼골을 보앗다。

집구루마 뒤를따리서 S정B부인댁으로갓다。중문안 돌아귀방인대 혼자잇기는 꽉알마즌방이엇다。이미분팡처럼 깨끗하게 도배질하고、장판도 새로 갈엇섯다。B부인이 친히나와 짐을 바더주고 책상이업는걸보더니

『아이그 문사가 책상이 업서으떠컨담』

그리면서 어멈을시켜 안에서 조흔책상하나를 내어다 방에노아주는등 대단한 후대엿다。

二十二日(金曜)

◇午後六時三〇分 童謠『치러니안』 柳長星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記念講演『빠너의生涯와그의作品』 李鍾泰

◇同八時 朝鮮文化講座(二) 崔南善

◇同八時三〇分 빠이올린과피아노 一、소나타作品三十第三番 …베-토벤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앗사이 第二樂章 템포·디·메누엣트 第三樂章 알레그로·비베-체 二、봄에게…그리-그作曲 빠이올린 桂貞植 피아노 朴賢淑

◇同九時 歌詞 一、春眠曲 二、乾坤歌 金蕉紅 文明仙 大笒 金永根

◇同九時三〇分 報告外 一、報告 二、새타령 三、六字백이 四、개고리打鈴 金練守 憬淑

第一放送

◇午後六時(仙)이야기 濱田廣

◇同六時二五分(東)基礎英語講座

◇同七時三〇分(同)講演 照谷榮 海軍大佐 前田稔

◇同八時(同)常盤津

◇同八時三〇分(大)新日本音樂 新曾絃管社

◇同八時五〇分(東)浪花節 浪花亭愛吉

二十三日(土曜)

◇午後〇時五分 첼로獨奏 一、…相曲……포-노作曲 二、西班牙舞曲 第五番 그라나도스作曲 三、夜想曲……멘델스존作曲 四、組曲……헬베로이스作曲 피아노伴奏 郭正善 A·L·빼커

◇同一時 野球試合實況『鐵道對府廳』『京電對遞信』 —龍山그라운드로부터—

◇同六時三〇分 레코-드音樂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時事解說 李相穆

◇同八時 朝鮮文化講座(三) 崔南善

◇同八時三〇分 라듸오드라마 —입센三十週年祭—『人形의집』—입센作— 第三幕 劇藝術研究會演出 柳致眞

◇午後九時十分 伽倻琴倂唱 一、短歌 瀟湘八景 二、唱劇調 春香歌中鞭石刑 朴八卦

◇同九時三五分 歌謠 一、靑春歌 二、노들江邊 三、도라지타령 四、닐리리야 五、鳳陽아리랑 六、興打令 鼓手 韓成俊 細笛 奚琴 張香善 姜錦蘭 李忠善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東)基礎佛語講座—丸山順太郎

◇同一〇時三〇分(東)家庭講座

◇午後〇時五分(大)管絃樂 大阪放送管絃樂團

◇同一時(東)올림픽派遣陸上競技選考實況

◇同六時(東)노래공부

◇午後六時二五分(東)生活改善講座— 永井潜

◇同七時三〇分(大)能樂— 觀世佐近外

◇同八時三〇分(東)三曲

◇同八時四五分(東)歌謠曲

二十四日(日曜)

◇午前一時 野球試合實況『鐵道對府廳』『京電對遞信』—龍山그라운드에서—

◇同六時三〇分 童謠 一、齊唱 봄 二、同 개골아 三、獨唱 그리운엄마 四、齊唱 고기잡이 五、獨唱 어린용의나 六、同 숫닭 七、同 인형 八、齊唱 뒷집할멈 九、同 놀곤의아들 進明主日學校幼年部 獨唱 桂惠蓮 伴奏 劉貞順 指揮 鄭永來

◇同六時五五分 心田開發講演 牧師 洪大衛

◇同八時 時調 一、平時調 二、지름 三、辭說時調 高永泰

◇同八時一五分(東)歌劇『라·죠콘다』第二幕 로자리오 키리作曲 伊庭孝譯詞 —配役(發聲順)— 바르나바……內田榮一 엔쏘……平間文壽 라우라……四家文子 죠콘다……佐藤千夜子 日本放送交響樂團 合唱 보-칼포아 指揮 篠原正雄

◇同九時五分 音律『靈山會像』 朝鮮正樂傳習所員

◇同九時五〇分 地方에보내는뉴ㅣ스

◇同一〇時 朝滿交換放送『朝鮮舞踊曲 僧舞曲』 大笒 方湧鉉 細笛 韓成俊 奚琴 金德俊 杖鼓 池龍九

第一放送

◇午前九時三〇分(東)어린이時間

◇同一〇時四〇分(東)趣味講演

◇同一一時一〇分(富)講演 山家基治

◇午後一時(東)올림픽派遣決定陸上競技實況 雨天이면左二個放送

◇同一時二〇分(東)舞臺劇

◇同二時五分(大)喜劇

◇同四時二〇分(東)大角力實況 兩國國技館에서中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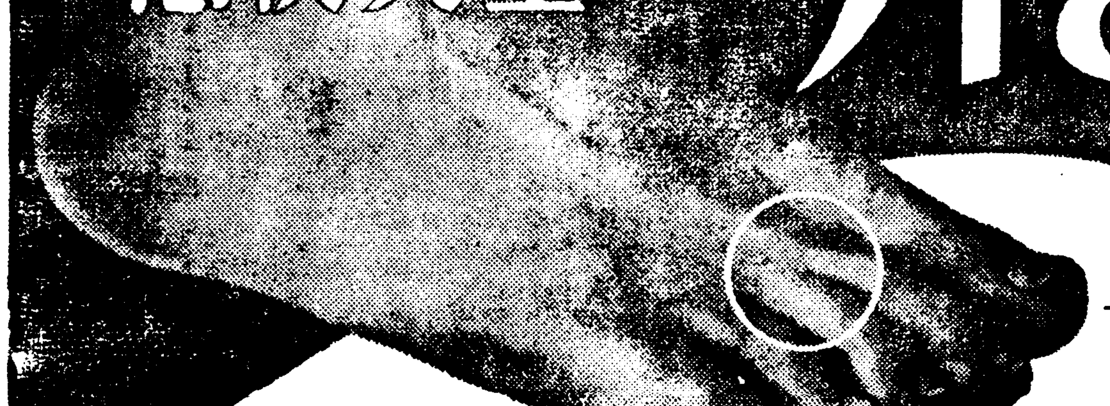
◇同六時(大)라듸오스켓취

◇同七時三〇分(大)日曜特輯뉴ㅣ스演藝

◇同七時五五分(東)長唄

◇同八時一五分(東)歌劇 라지오른다 第二幕 로사리오 坂田仙八外

◇同九時五分(名)佛法僧鳴聲實況 三河國鳳來寺山山腹에서中繼



一塗爽快感

다무시칭키

버짐·음습진·무좀·백납·쇠버짐

小林 浸透性深達療法

참으로 效果잇다!

이말은一次使用하신분에게서듯는讚辭이다

그럴것입니다!

다른藥劑에比하야浸透性深達力과殺菌力이强하고皮下의潛伏菌도殺菌하고

其發育을抑制하고고친潰瘍面을消毒保護하야새로운健皮를再生하고깨끗하게治癒하는것은本劑의特長입니다

한번발너보십시요

참으로爽快한氣分이남니다

大阪東京 名古屋京城 小林大藥房

藥店 데파-트에잇다

定價 20 30 50 1.00

胃腸에

TAKA-DIASTASE

タカヂアスターゼ

다가쟈스타-제

特히一般ヂアスターゼ類와그體質에잇서判異한點이잇슨즉特히留意하라

消化不良으로因한胃腸病。過飮。過食에依한消化不良의防止 胃腸機能의亢進에依한食慾。榮養의增强等에對한 本品의效果는一般ヂアスターゼ와比할바가아니다。이本品은。單澱粉消化酵素에만끈치는것이아니라。多種多樣의綜合酵素로써効力不變。體內胃酸에抗하야。顯著한消化作用을 發揚함으로써이다……(粉末과錠劑各種)

—呈送說明書—

三共의藥品定價와簡單한說明을記入한冊子『三共の藥品』을參考하실분은朝鮮日報名記入하야申込하시면送呈하여드림

東京市日本橋區室町二丁目 三共株式會社

交響樂的映畫의最大傑作 五月二十一日부터超豪華大興行 巨匠레오·마캐리ㅣ氏大作品日本版 하롤드로이드氏主演 로이드의牛乳屋 아돌프·만주氏 헬렌맥크 助演 爆笑超特作!旣成의明朗을凌駕하여三年만에出現한로이드의喜劇 코롬비아社超大作日本版 로스·리ㅣ다만氏監督作品! 地獄船모ㅣ겐 巨星조ㅣ지방크로프트氏主演 아사ㅣ산텔助演 紺碧의海原에沈沒寸前의感激! 狂亂의怒濤中에死闘의생활을그린戰慄篇! 實興鑑賞百%! 熱加壯演조ㅣ지방크로프트의一生의代表作 赤城キネマ超特別提供 監督久保田義氏 全發聲 嬰兒殺し マキノ智子 荒木忍 主演 貫鐵町 電光三九五 優美館

五月二十日より五月二十六日まで 上映時間表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江戸節めをと姿 大學よいとこ 白き處女地 [illegible]

下加茂トーキー 江戸節めをと姿 高田浩吉 白河富士子 蒲田サウント版 大學よいとこ 小津安二郎作品 映畫史あって以來の殉情の傑作 白き處女地 デュヴィヴィエが築いた最高の映畫詩! 浪花館

廿日ヨリ超豪華封切特別大興行 晝夜三回繰返映寫正午開場入替無 今週の番組 ▲東日・大每國際ニュース 第百四十八輯 ▲パラマウント映畫超特作日本版 巨匠レオ・マッケリ監督作品 ロイドの牛乳屋 ハロルド・ロイド大熱演アドルフマンジユ、ヘレンマック助演 喜劇王ロイド一世一代の大傑作 景氣と爆笑を滿載したロイド映畫中のNO1、諸君は一分間に二度死爆笑する覺悟が必要ですぞ!! ▲P・C・L超特作オールトーキー 桃中軒雲右衞門 名匠成瀨巳喜男監督作品 月形龍之介主演細川ちか子、千葉早智子助演 日本トーキー始まって最初の大傑作!熱に生きる不撓不屈の雲右ヱ門が苦闘の姿を描いた大作!! 若草映畫劇場 電本五二五四番

當る十九日より四日間 毎日晝夜二回興行午前十一時開演 半歲振りの御家族爆笑週間?? 階上·階下席共行次第 大人·學生 二十錢均一 小人 拾錢均一 開放 FOX超特作日本版 製作ハロルド・ロイドプロ 日本版監修 佐佐木邦 監督サム・テイラー ロイドの大勝利 ハロルド・ロイド主演 ウナ・マーケル嬢助演 新興キネマ提供 寬プロ超音級時代劇 オール・讀物號所載 原作野村胡堂 監督山本松男 撮影野村金吾 錢形平次捕物帳 紅達地獄 嵐寬壽郎大熱演 歌川八重子・五十鈴桂子・淡路子夜子・助演 新興キネマ現代劇部特作 原作脚本部合作 監督川手二郎 爆笑篇 細君ネロ 永樂町 電話二[illegible]番 中央館

綠陰漫筆 ❶
花語雜叢
湖岩

지난 日曜에 花卉한다발을 어떤 靑年이 나에게 선물로 주엇다

그 靑年은 이 봄에 專門學校를 마치고나서 손소 自己生活을

開拓 하려는 意氣勃勃한 異彩잇는 人物이다

그가 今年二月 어느날인가 病席에 잇는 나를 처음訪問햇슬때도 原名을히아신스라는 溫室栽培의 洋花一盆을 가지고 왓섯다

病人에게 조흔꼿을 주는것은 果實이나 菓子가튼 膳物보다도 어느덧 高尙해보엿다 아닌것아니라 「히아신스」는 綠葉紫花의 그빗갈과 그욱한 그香氣가 觀賞者의 美感을 자아내지 안흘수 업섯다

겨으를벗어 나로서도 이꼿에 對해서는 朝夕으로 물주기를 니저버리지 아니햇스며 病床에 노코 愛玩함을 말지안햇다 그리다가 이꼿치 뜻밧게 女性朝刊誌의 한구석에 실리게 되엇다 다만 그

名稱 이 水仙으로 잘못 적히게 되것은 좀 서운한 일이다 그러나 森性爲科하는 草花自體로는 이처럼 俗批에 알려지는것이 도리어 累가 될는지 모른다 꼿은 어데까지든지 自然스럽다 사람이꼿은 볼때 또한自然스럽게 보아야하겟다。

日前에 어든 花卉그것도 大部分이 洋花이다 眞紅과 粉紅의 齊色「주립프」를 비롯하야 그他 數種의 빗갈다른꼿치 잇섯고 그中에는 初夏의 산뜻한 氣分을 나타내는 纖細優美한 羊齒類도 석겨섯다 白磁甁에 가득히꼿친 이五色草花의美는 지난二月의히아신스보다도 오히려 일층더 觀賞을 勝感하는바 잇섯다。

그靑年이 나를 찾게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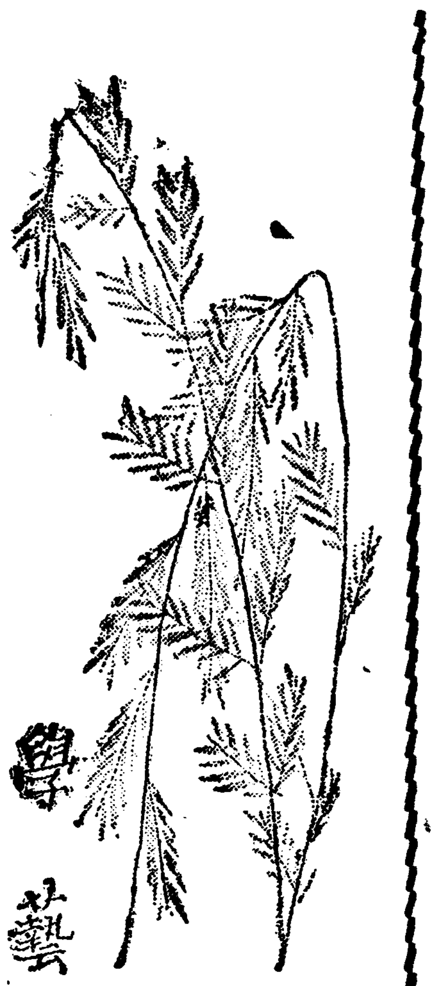
動機 로 말하면 언제인가 朝鮮日報를 通해서 나의 쓴 꼿의로맨스를 본때문이라 한다 그는 나를 對하야 史的으로 꼿이야기를 해달라고 請한다 그리고 朝鮮固有한 꼿 초로 남에게 자랑할만한 名花가무엇이나 하고 뭇는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滿足을 줄만한 應答을 하지못한것이 遺憾이다。

東國無眞蘭。只有倂蘭者。世人錯相愛。不得老林下。

이것은 正祖때 山靈 李德懋의 絶句로 朝鮮에는 眞蘭이 업다고 하엿지만 어보담 거의 三百餘年을 압서서 靑川 姜希顔은 湖南의 海南 莊家山에 眞蘭이 잇다고 그의

名著 인 養花小錄에 말하엿다 오늘날 日本內地人의 花卉는 朝鮮產의 蘭을 각구와 아주 珍品으로 삼는것이 아닌가 朝鮮以外에도 高山植物로서 아직 世間에 알려지지안흔 奇花異卉가 얼마든지 잇을것이다。이를테면 白頭山의 金蓮花와 智異山의 木蓮花가튼것도 그一例이다 이들의 숨은 花卉를 採取해서 각구와 꼿피는것도 조흘것이다 이로보면 朝鮮에 名花가 업는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각구는 名園藝家가 업다。

文壇時事數題—(七)
局面打開를爲한對策
金翰容



以上 數回에 亘하야 筆者는 文壇學界의 時事라고 할만한 數個項目을 無秩序하게 論述하엿는데 이를 要컨대

【文】 壇學界의 振興이나 또는 저-널리즘의 新生面開拓을 爲한 努力으로서 그取할바 方策에 對한 希望의 一端에 不過하엿다。換言하면 이 모든것이 모다 沈滯打開를 爲한 工作이라고 할수잇슬것이나 이보담먼저 이러한 工作을 可能케하고 有效케할 準備的工作이 무엇보담도 必要하다는 것을 切實이 느낀다。웨 그러냐? 나는 敢히 現今의 우리社會를 無反響、無神經社會라고 부른다。마치 아모리 돌팔매질을 하여도 물결이 일지안는 凍結된 水面과도가티 어떠한 社會的現象이 일어나든지 어떠한 理論이나 主張을 내세우든지、어떠한 提案이 나오든지 도모지 아모 反應이 업는것갓다。이는 文壇學界뿐이 아니라。全社會가 그러하다。바로

【無】 反響그것이오 好不好、適不適、能不能을 批評하려고도 안코 主張하려고도안코 그리하야 實行에 옴기려는것을 차저보기가 어렵다。이리하야 이江山에는 고달픈 沈默이 잇슬뿐이다。죽은 듯말이업고 反響이업다。生活能力이 모조리 喪失되고 生活作用이 一切 停止된것과도가티。이는 決코 臆測도 아니오 誇張도 아닌 너무도 明白한 事實이다。그러므로 어떠케하여야 이沈滯를打開할가하는 對策을考究함이 업시 아모리 局面을 打開하려고 少數人이 努力해보앗자 아모런 效果도 업슬뿐아니라 도로혀 그活動조차 無意味하게 終焉케하는 反作用을 誘致하고잇다。이도 勿論 그原因을 캐어본다면 亦是 社會的諸條件에

【制】 約된 것이지만 如何튼 結果라고는 이러한 環境을 깨드리고 새로운 雰圍氣를 만들지안코서 어찌 文壇學界의 向上發展이나 社會全體의 進路開拓을 企圖할수가 잇겟는가。만만하게 渙起된 땅우에 아모리 조흔씨를 뿌린다하더라도 그씨가 싹틀어 떡니피자라날수는 업는것이다。하물며 茂盛한 줄기와 꼿다운 結實을 바랄수잇겟는가?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의全力을 傾注하지안흐면 안될것은 沈滯打開와 生活力獲得을 爲한 方法을 發見하는데 잇다 할것이다。그러기爲해서는 첫재는 現實을 逃避코저하는 傾向을 뭇질러야 할것이오、둘재로는 個人의 生計나 利益이나 또는 繁榮을 爲해서는 社會的으로 어떠한

【低】 劣한 行爲나 生活이라도 擇할바아니라는 利己主義、目的업는 拜金主義를 排斥하여야할것이며 다음으로는 斷末魔的 頹廢氣分에 眈溺하야 個人도 社會도 不顧하고 官能的滿足만을 求하야마지 안는 醉生夢死의 가장 低劣한 生活態度를물리처야할것이다。어떠한것이우리社會의 沈滯의 根本原因이되엿다。이것은 가장 憂慮할痼疾이다。이러한 痼疾이 잇고서야 어찌 社會의 健全한 發達을 夢想인들 할수잇겟는가。이痼疾의 外科的內科的手術을 베플지안는다면 날로 致命的重態로 나아갈것은 明若觀火의 事實이다。이것이 나의 錯覺이나 妄想이 아니고 적어도 社會的現實이라고 認定할수가 잇다면 우리의 모든

【活】 動과 努力이 이에 集中되지안흐면 안될것이다。그러므로 우리는 現階段에 잇서서 무엇보담도 먼저 致命的痼疾의 醫療工作을 베플지 안흘수 업슬것이다。即 所謂 沈滯打開를爲한 對策을 講究하여야할것이다。그러나 이具體的方法에 關해서는 效果잇는 唯一한 方法과 가튼것을 容易히 發見할수잇는 性質의것도 못되며 個人的인微微한 活動으로도 안될것이다。自覺잇는 先覺者들의 活動에依하여서만 可能한일이어니와、同時에

【社】 會의先驅、木鐸으로서自任하는저-널리즘에賦課된 當面의 急先務인것만큼 저-널리즘의 更新이야말로 最初最大의 要件이라고 안흘수업다 一步進하야 社會機關의 總動員에依한 一般의 意氣振作도 考慮되어야할것이다。이리하야 一般의 自覺을 꾀하고 生活力을 吹入하야서 社會的痼疾을 물리치고 新生活力과 新意氣로서 새로운 生活을 向하야 突進할수가 잇슬것이 아닌가。文壇學界의 繁榮을 나흘 根本的要件도 여긔에 잇스므로 모든 方策과 모든手段이 이러한 沈滯打開를 爲한 對策을 講究함이 업시는 可히 그것을 期約키도 어려우려니와 實行에 옴긴다하더라도 그事業의完成은 또한 期約키어려울것이다。이런意味에서 社會的總力量은 무엇보담 먼저 여긔에 集中되어야 할것이다。(完)

美展槪評 ❸
安碩柱

▲金基昶氏의 「海女」는 努力한作品이나 아메 두海女外에는 데상이 不實하다 氏의作風이 金重鉉氏와 距離가 過히 멀지안흔것갓다

▲鄭海駿氏의 「雷聲相合」은 아모리 東洋畫라도 이런題名이 그作品을 스사로 評價하는것이다 나는東洋畫家들中에서 종종 이러한 餘技를부리는이를 때때로 보지만 「雷聲相合」가튼 題名은 너무도 陳腐한듯지이잇다 이作品은 努力이얏가웁다할만치 平凡한 作品이다

▲李寶玉氏 이분亦是 靑田流에 갓가운데 그림에는 그繪具나 그材料를 問題삼을必要가업고 어데다 그리든지 그림만되면 고만이겟지만 그材料에게 힘을비려서 達筆가리되는때도잇다 이런作品에서 나는 늘 이런늣김을 엇는다 이一幅가朝鮮에서貴한 女流畫家이기때문에압날을 期待하는맘으로 본다면모르되 別로히 感興이업는 作品이다 그러나 어마즘이라도 각구어 노흔데는 또한 이方面에素質이 업는사람으로서는 勇氣를못내는지모른다

▲洪淳仁氏 이분의作風은 春谷高羲東氏와 近似한데가잇다고하면 그 一幅만을보고 壯談할수 업스나 그色彩에잇서서 더욱彷彿한데가잇다고 늣겻다 그러나 이말은 이분의名譽를 毀損코저 하는것이아니요 한流派비젓한것이 생겻다는것이다 아프로 氏의作品을 더한번보기로하자

▲李漢九氏 이분은 그림을 詩와가티 생각하는듯하다 그色彩에잇서서 『센지』한비치 너무도 朝鮮의 農村風景을 詩境에다 집어넛는다거나 또는 映畫의場面가티 맨들라는데에잇서서 너무도 平面的인 損失을 가저왓다 印象派時代에도그物體를 똑바로보고나서 點色畫로도 表現해놋것이다 이것은 마치 꼬리 詩로 쓰라다가 그림으로 그린 보지못함과 갓다。다는것은 그두가지의領域을생각못한데잇슬것이다

▲崔貞順氏 이분의(雪中白鷺)는 겨울이면 모든것이눈과가티 할것으로 볼모양이다 어그림을 그런 作者도 이때에는 「어름」이될는가 이말은 내가그白鷺를 보고한말이다 그런데 色彩가천비치라고 한것만이아니요 白鷺된때와 그빗、말하자면하이라이트에 이 白色이 무슨말보담도 따가웁게 보일수잇다면 웨 이白鷺는 노파가리 찬어롭빙이로 보이느냐 말이다 그 筆致에도 關係가 큰줄안다 너무 약섯가토나 그白鷺에게는 겨울이라도 띄운피가 全身을 흐를것이다 雰圍氣한 말은 여기에 할말은 아니다 그러나 精進하면 그만한 技巧를 가지고 조흔 作品을보여줄수잇슬것이다

▲白潤文氏 이분의 作品은 어느때보거나 簡潔한데 好感을산다 이번 「威振八荒」은 너무도 完成에 갓가운것가타서 氏의 압날의 危險을 생각하게한다 이제부터는 좀다른境地를 開拓해주 무르익은것에서는 다만은 맛도 早熟하지 안햇는가 나는 아서도 그것이 떨브다 나무에 매여딜때의 풍경를 가지고싶고 거기서 산열매에게서 밧는 感覺를 갓고십다 이것은 누구나 가치생각되는것일것이다

『노라』印象記
별서博物館的存在인가?
全一劍

筆者가 築地小劇場에 關係하고 잇는동안 입센作品의 上演이라고는 「노라」뿐이게는 업섯다 一九三〇年——三三年동안까지의 築地小劇場은 日本프로劇의 全盛時代엿슴으로 입센의 作品이라고는 거들떠보지도 안든때엿다。

그리다가 마침、一九三三年下半期에 일으러서 日本新劇團(프로劇團體도包含함)사이에서近代劇의再認識이라는 問題를 새롭히 떠들게되엿다。

이리하여 當時 近代劇의 가장代表的인作家의作品을 上演하기로 되엿다。即 하이엘만스(和蘭)作 『天佑丸』하우프트만(獨逸)作『織匠』 그리고 입센의 有名한 『노라』가 上演하게되엿다。

當時 (一九三四年一月이라고생각된다)이 입센의 『노라』의 上演은 정말悲慘하엿다。築地小劇場創立以來처음이라고할만치 觀客動員數가 적엇다고한다。筆者도 十日間을 이公演의 舞臺裏에서 넘은客席에 가틀에동나듯이 이곳저곳에 안저잇는 모다한한대도 廿名이되나마나한 觀客을보고 몹시 서운하엿다。現今의觀客들은 벌서 입센의노라보담 멧거름압서고 잇고나 하는생각으로—

事實、近代劇의 가장代表的인 입센、하우프트만、하이엘만스、이세사람의 참피온中에서 입센이 제일뒤떠러지고잇섯다。『織匠』『天佑丸』은 大成功을하엿스나 特히 『天佑丸』은 大好評으로 今年五月에新協劇團에서 再上演하고잇다 입센의 『노라』는 完全히 敗北하엿다。勿論이것은 觀客動員數만을標準으로 말한것이아니라 여러가지點으로보아서 그러하다。一時 그러케까지 感動을 주엇다든 노라는 벌서 지금의우리에게는 近代劇의 博物館的存在에不過한것이되고 말엇다。

하이엘만스의『天佑丸』에서나 하우프트만의『織匠』에서는 아직도우리들에게 感動을주고남는 그무어이잇섯다。그속에는 近代的인 劇的要素와 群衆의다이나믹크한 율동이잇섯다

입센의「노라」가 築地小劇場에서 上演될때에는 俳優나 演出에잇어서 失敗햇슬이고、作品自體의罪는아니라고할까?

아니다 그때의 配役은 「노라」를 山本安英氏가하엿다。이분은 日本新劇의 最高水準을것는 演技者들인은勿論이고 特히 山本安英의 노라는 從來의 日本의어느女俳優의 노라——松井須磨子、水谷八重子、村瀨幸子——等等에 比較하여서 가장 適役이라고한다。또演出도 有名한 佐佐木孝丸氏가 맛터하엿다。이公演의失敗의原因은 全혀 作品에잇다。

이作品이 아모리 一時全世界를 風靡하엿슨 不朽의 名作이라고하여도 이作品을 그냥지금上演하여서는 現代人에게는 아모런感動도 주지못함만큼 벌서過去의 것이 되고말엇다。

『노라』가 男便과 귀여운어린애들을버리고 집을떠날때에 들리는 문소리도벌서 우리에게는 아모런 감동도 주지못하고잇다 노리템포、그라고 아모리 이作品이 用意周到하게 構成되엿다하여도 現今의 우리에게는 故意로 꿈여낸것가튼 흠이 보이고잇다。

이러타고하여、筆者가『노라』의것 近代劇上의記念的作品이라는것을 全的으로 否認하는바는 決코아니다。

今後우리들이 입센을 對할때、좀더 달는角度로 對하여야할것이다。

입센을 有名하게한 그의社會劇보담도、오히려 그의初期의詩劇과、晩年의象徵劇의 새로운形式의演出에 만흔期待와 興味를 가지고잇슴을 말하려함이다。

乙支公詣墓行(三)
李相昊

李某의 無識은 말할것도 업거니와 墓의周圍에도 無名古塚들이 浪藉하게 둘러싸고잇다 明堂을차저서는 民族的靈將의 墓宅을犯하고도 晏然한 悖逆漢들은 恢恢한天網을기두릴뿐이겟지마는 이悲痛들의所行보다도 이런罪惡들을 視若不見하고잇슨 當時爲政者들의 寒然無心한그罪 저들에不下할것이니 저들은 父祖의대를 明堂에모것다는 大義는靑史로되나 後孫의無知가 지은罪一般의 餘殃을 차출수잇겟지마는 五百年을두고 我利私慾에 沒頭하야 黨爭만을일삼는 그들이 이方面에잇서 民族的倫綱을세워 國民精神을 振作할 敎導와 施設에는 寸毫의留意도 업섯슬뿐아니라 國民的大義名分이 亂民들의 이런悖行을 罪하고 刑할綱紀가 甚如한그罪 至重且大할것이다。

歷代의平壤監使는 美色에 眈하고 뱃노리에밤낫몰이라 언제 五十里郊外에 名將의 遺骸가 潛藏에 구을고잇슴을 알엇겟스며 練光亭 浮碧樓를 粧飾할에는 萬金을不惜하야 華美한 輪奐을 자랑하엿고 金樽玉杯속에서 逸樂度로 荷歡을 能事해왓지마는名將의 祠宇一棟이라도 세워薄酒一杯라도 獻酌할生意는 꿈결에도 업섯스니 이官에 그民잇슴을 큰허물잡지 못할것이다。

○……○

記者는 墓前에 佇立한대로 精神업시 서서잇슬라니 願氏는 나를보고 「五十餘年以來로 아마 墓의前面에서 拜禮하신분은 先生이 처음이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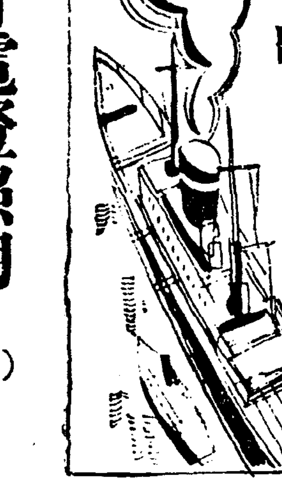
처음은 무슨理由인지 잘알어뭇지못하엿드니 알고보니 그럴듯한일이다。將軍의 墓머리에 李某의墓를 重葬을하다시피 써노흔뒤로는 一年에한번이고 두번이고(이것도 近年일이겟지마는)祭享을 하는분이 잇서도 墓前面에는 李某의封塚이 막어잇서 어찌수 업시 뒤로 도라가서 墓의 後方에서 拜揖을 한것이라고한다。그러든것이 지난寒食日에 李某의 移葬을 식힌後는 記者가 처음으로 이곳을 차젓슴이라는것이다。이런 罪悚한 말이 또어데잇슬까、

이땅이아니고는 보지못할일이라 생각하고는 汗背를 禁치못하엿다。

○……○

墓所로부터 約三四十間 北쪽비탈로 떠러진곳에 將軍石한개가 노혀잇다。이것은 元來 將軍의墓石物로 無心한牧童들의 所行이겟지마는 뒤에 굴러버린것이라고한다。考古眼으로 鑑定한바에 따르면高句麗時代遺物은 아니요、高麗時代에 내려와 重修를하면서 세운 石物이라고 推測을 한다。그리고보면 將軍의 墓를 度外로버려 푸대접을하고 關心을 가지지안흔것은 李朝에 내려서서 부터임이요 高麗까지도 人物은 前朝人物이나 國民精神을 振作함에 唯一한 表象으로 그를崇拜하고 尊待하야오것이 틀림업는일이라고한다。새로운 石物을 重刱하고 새로운 祠宇를 重建하기는새로히 세워주것、잇는것까지도 保全을 못하고 제자리로부터 떠어버린事實들의 소공비를매는 물맘죽을 만드러버렷다는것이다。風雨屢百年將軍의 墓를守護하고잇슨 말업는將軍石도 이거렴의 無心을 한숨지듯이 보여슬뿐이엿다。

空襲과電燈照明(五)
東電技術部 兪完昌



(其) 廢爛性毒瓦斯

「이페릿트」라는것은 廢爛性毒瓦斯인데 酒精 硫黃에취렌瓦斯及鹽素를 主藥으로 製造하는것이다 常溫에는 無色液體로刺激性의 芥子臭를 有하고 作用時에는 液體及氣體로化하는것이다 眼目及呼吸器官等을 侵害하고 皮膚에 接觸하시는 發泡廢爛하는것이다 이毒藥은 特히 持久性을 有하고 撒布하면 마치 散水함과如히 諸島에 液狀으로 附着하야 徐徐히長時로 氣化하면서 人體를害하며 그水滴에 接觸하면 皮膚에 廢爛性威力을 發揮하는 實로可恐無比한 毒物이라 稱할것이다

爆擊機十機編成의一中隊는 一回의攻擊으로서 正面十哩 幅面二哩의地域을 毒化할수잇다하니 大京城은 이範圍以內에잇는것이다 即 爆擊機十機의 一中隊가 만일 大京城을 攻擊하엿다하면 大京城은 即刻 파리一匹남지안코全滅되고말것이니 그慘狀을 可히 알수가잇슬것이다

結言

余는 以上 電燈照明과 空襲에 對한여가지事實을 考察하엿보앗다 人間으로서는 누구나平和를 歡迎할것이 異論가업슬것이다 그러나 現今世界의政情은 그反對다 저 人間의慘虐한世界大戰이 끗난지不過二十年 또다시 무서운戰雲이 地球上에 低迷하고잇는것을 뉘가否認할수잇스랴 武器科學의發明되는여러가지 새事實은 뒤를이어 우리의耳目을 놀내이고잇다 이에對한批判은筆者의 領域外다本稿의 任務는電燈照明과 空襲에對한 科學的事實을 不充分하나마 若干紹介함에잇는것이다 이 武器科學의 發達하는 新事實의 「뉴-쓰」가 거듭할때마다 再次의 世界大戰을 催促하는것가티 筆者에게는 生覺된다

일즉이 人類가創造한 文化中에 가장偉大한이 航空機는 樂高한 文化의 使徒라稱할수 잇슬것이다 그러나 一朝有事에는 世界大戰이 勃發한다면 이航空機도 敢然히 그假面을 脫棄하고 電燈照明을 目標로 夜間空襲을 두려운 文化破壞의 暴兒로變할것이다

이地球上의모-든人間들은 이 平和한蒼穹下에서 無軌道的으로 헤매이고잇슴이아닌가 그中에도 이地球上에는 絶倒한 形勢에도 無關心으로 夢中에서 神仙노릇하는무리도 적지아니하리라고余는밋는다 그中에도 朝鮮民衆은 더욱그러리라고 나는生覺하고擔憂하는바이다

—끗—

四象醫學批判(續)
그理論과實際에關하야
❹ 李乙浩

첫재 藥劑의 先天的素質을 基本으로하야 藥材를 選擇한다。

가령 病勢의症候는 外觀上類似하드래도 그의天稟이다를때에는 投與하는 藥材가스스로달너진다 一例를들면 少陰人의 發熱惡寒發汗等症에는 體熱이 놉드래도 官桂、附子、人蔘을 쓸때가잇고 太陰人에게는 葛根 麻黃으로 發表하거나 便秘가따르면 大黃等劑으로 瀉下를꾀한다。少陽人에게는 石膏 知母 ·猪苓을쓰나 少陰人에게는 絶對禁物이다。以熱治熱이나 以涼治熱의 分岐點은 오로지 그天稟에달렷다

둘재 生理的機能의 綜合統一性을 尊重하야 藥材를 選用한다 單純한 對症投藥이아니라、生理的順調를 主眼으로하야 熱의發散을 下가 生理機能과 相反되지안케 愼重히 役藥한다。

傷寒이란 元來 生理的變動機轉이나 外力的原因의 關鍵도조호나 이는往往 別症의派生이念慮되는때가만타。病症이란 마치 體力과 外因과의 戰鬪로 體力이 敗戰하는現象에 比할수잇스나 自力으로써 敵을 쫏느냐 一時的標準으로써 敵을 驅逐케하느냐 이點에서 施術者의態度가 分揀東洋醫術에선 主로 前者를 取하고 西洋醫術에선 主로 後者를 投한다。

셋재 四象醫學에서는 藥効의 特異性을 認定하지안는다。따라서 特異體質의 槪念이 自然히 달나진다。가령 人蔘의一例를들면 人蔘은 少陰人의 靈藥이라도 다른類型의게는 特異性을가젓다하리라 그러므로 少陰類型外의 다른類型은 人蔘의 特異體質者라할것이니 모-든藥材가 다-다른類型에게는 特異性을가지고 藥力이 無効하거나 甚하면 有害하게되는것이다。

그런까닭에 藥効의特異性은 相對者如何에따라서 左右되는것이니 特別히 認定할必要도업거니와 또한無視할수도업다。

全人類의 類型이 辨別되면 藥物特異性은 自然消却해도조치만 그前에는 特別히 더욱注意하여야하는까닭은 全人類가 다-모-든藥物에對한 特異體質者라고 할수잇기때문이다。

그러므로 李濟馬는 四象人用藥을 愼重히할것을 警戒하야 如左히말하엿다

人物形容을仔細히商量하고 病證을互相參酌하야 疑念이업거든藥을쓰되 決斷코輕忽히 一貼藥이라도 投藥해서는안된다 重病險證에施藥을그릇치면 一貼藥이能히사람을죽일것이다 (原著一四〇頁)

이것이 四象醫術이 녜사람들의醫術과달너 用藥이 또한偏僻된까닭에 유달니 注意를要하는 까닭이 된다。

무릇 特效藥이라함은 附生寄效(副作用)을慘酷한 境遇에는누구래여그使用을 말니지안흐나 그러나 副作用이업는 特效藥을두고도 그것을使用치안코 다른것을쓰려함은 어리석은일이다。

무릇 어느特效藥을 勿論하고 萬人一律的인것은 筆者의淺見으로는 아즉보지못햇다。어느藥物이든지 저가진藥性대로 제구실을 忠實히 다지안흠이업스되우리의體質은 그것을 그대로 容納하는者가잇고 容納하지안는者가잇슴을 어찌하겟는가。

藥性은 忠直하되 體質은까다롭다。여긔에 藥物運用의 難點이잇는것이다。

그러므로 藥物의藥效를 規定할때 現代藥學者나 藥理學者들이 犯하는誤謬는 藥性의忠直함만알고 體質의 까다로운것은 모르는데잇다。藥理藥效의 研究는 언제나 人體의體質을尊重하여야할것이요 藥劑藥의 人體反應程度(反應)의研究도 언제나 人體의 特性을 愼重하여야하나 研究의便宜만을쫏차 動物對比試驗에依하는것가튼것은 어찌좀 어설푼것갓다。오늘의藥理學者의 人類體質에對한 關味는 언제나 階梯될는지!

新刊紹介

▲主日學校申報 第六十九號(月刊) 發行所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 朝鮮主日學校聯合會 振替京城一四六三六番 定價一部四錢

▲小說集黃昏의노래 李石薰著(主要目次)불의序曲 愛情의懺悔 冠의饗宴 友情 黑潮 懺悔 그들의盟誓 夫婦 가난病 가을의一節 로라의死 職業苦 사내世上 甲武官妾人 狂人記 등 Q의失態 移住民列車 放浪兒 海香의노래는 눈물의 散文詩 等 其他 定價八十五錢 送料六錢 總販賣所 京城府堅志町三三漢城圖書株式會社 振替京城七六六〇番

▲黑頭巾 尹白南著 發行所 京城府寬勳町一二一 三文社 振替京城九七五六番 定價一圓五十錢

▲高麗時報 第四十三號(月二回) 發行所 開城府北本町三九六 高麗時報社 振替京城二四〇九三番 定價十錢 發賣所 京城府堅志町三三 漢城圖書株式會社出版部 振替京城七六六〇番

讀者社交室

▲四年前 市內仁寺町二五番地居住하든 金貞瀷(女子)이가 現今城北町(東小門外)近處居住한다하오니 其住所를 알려주시는分에게는 薄謝를 進呈하겟습니다 市內寬勳町一九三(電光二一九九) 朴時憲

▲靑年은 當年二十一、十六歲時公普를好成績으로卒業하고 이때꺼지 目的업는 공부를하엿습니다 目的은 敎育界올시다 敎員養成에조흔 講義錄을 下敎하야주소서 東京大日本受驗研究會에서발행하는 受驗實力養成講義錄이如何하오지 本欄을 通하야 下敎하야주소서

▲當年二十三歲의 靑年이온대 纖維方面에 從事하고 特히 織物及撚絲에는 萬能한技術을持有하며 多角的으로 研究를거듭하여 特異한撚織手法이 全東洋的으로도 遜色이 秋毫도업스리란 自身이잇습니다 産業發達過程에잇는 朝鮮이나 滿洲等地에잇는 企業家諸氏여 資金未及으로 手腕을 뽐내지못하는 進就性만코 發達性이 多多한 老煉한技術을 一次試使하시면 獻身的으로 盡心竭力하여 纖物界에 一大驚異點을 表現하게사오니 有意하신분은 社交室을빌어 通知하여주심을 大望합니다 京都에서 宛里

▲親友不忘生에게告함!去四月二日付本欄을 通하야 生의現住所를 親切하게도 問議하기에그問議子가 누구인지는 不知하오나 그誠意가잡된 朋友인을 늣기올기 玆에 本欄으로 通知하오니 下諒하소서 (晉州劉敎元) 現住所는平北碧潼郡邑內 陸軍官舍이요 勤務處는 碧潼憲兵隊이오니그리아소서

▲누구시든지 朝鮮日報昭和八年四月分에 실리엇든 安廈氏의 兒童漫畫「차돌의모험」(十一回)를 오려서 附送하야주시면 感謝하겟습니다 嘉會町 漢陽苑集生

▲今年度市內某專門學校入學者 市內某家庭에 家庭敎師로 採用하야주심을希望함、給料는薄給이라도當授할市內南米倉町 金某生

▲湖南에잇는 高等普通學校를 卒業한 二十三歲未婚靑年이온대 金融組合事務에 多少經驗이 잇사와 今般 商業方面에 進出할 目的으로 百貨店和信本店의 店員을 希望합니다

一、今年度 店員採用期日及 採用方法은 如何?

一、志願書類의 提出은 어데다하며 提出을 要하는 書類는 무어무어입니까、그리고 受理期限은 언제부터입니까 (湖南 一讀者)

▲尹佐炳氏 忠南論山서살든尹佐炳氏 京城으로 昨年六月頃移去한後 于今消息을몰라 蒼蒼하니 多幸本欄을 보신다면 現住所를알려주오 이社交室로 그리고海珠도잡혓나지요 湖南의一人

▲本紙二月十四日夕刊附 平壤府壽町一讀者게答함 先生의 讀後하시겟다는 正則中學講義錄은 本人이 讓受하겟사오니 放賣價格을 左記住所로 通知하야주심을 굿게 바래나이다 宜寧邑西洞四八五 尹敎鉉에게로

▲文學에뜻을두고 알뜰로더욱 研求하시라는분에게 小生에 懸志을말슴합니다 生이文學에 多少뜻이잇스나知己를 求치못하고 講讀書交換지못해서 甚히遺憾으로 생각하고 잇습니다 萬若京城에 居住하시는분으로 小生과가튼 생각을 갓고계시거든 左記住所로通知하여주시사요 京城府杏村町二百十番地ノ五號 柳信積

★曆★

五月廿三日(土) 陰癸巳四月小(初二日) 乙巳·火·柳·危

●祭祀에宜함

●小滿二十一日(舊初一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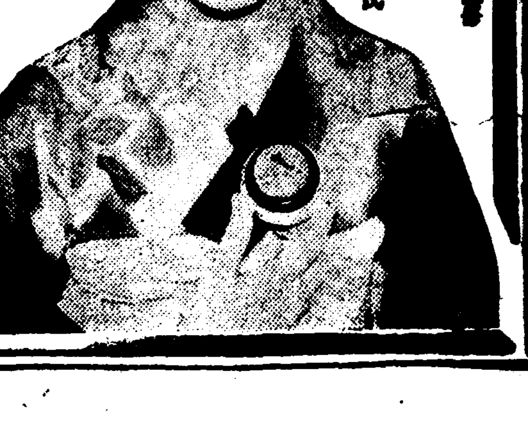
●芒種六日(舊十七日)

漢詩募集

題、綠陰 押=鶯

◇限五月末日 (薄謝進呈)

帝都 マネキン 마네킹 ホ3


「부루-스」를 使用하는 日活스타- 花井蘭子氏

期日
五月二十三日(十二時부터八時까지) 京城本町 三越
五月二十四日(十二時부터八時까지) 京城府鍾路二丁目 德永本店 京城府通町 洋照百貨店
五月二十五日(十二時부터八時까지) 京城 丁子屋化粧品部 京城府新町 白石商店

新流行의 목美粧料

絶對로白粉下를使用치안코 普通固煉白粉의1/3의分量으로놀낼만치 아름다운목化粧이되는最高級의목白粉

花井蘭子氏의말슴
목白粉으로 至今까지 여러가지使用하여보앗지만 이것이면 滿足하다고 생각한것이업드니、最近"부루스"를使用하야 비로서 白粉의良否를 알엇습니다 "부루스"야말로 全혀 목白粉으로서 理想的化粧品입니다 그리치안흔 喜白粉下가 全혀所用업시 크림과가티 잘먹는 普通固煉의三分의一量으로 훌륭히 아름다운化粧이됩니다 普通固煉白粉과가티 살결을 거칠게하지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白粉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르몬(含有)
ブルース 부루스

白色 日本髮인분께
肌色 一般婦人께
黃色 洋髮하신분께
¥ 1.00 三倍의使用

—試用瓶進呈—
二錢切手三枚封入하야申込하면試用瓶으로送付함니다 (朝鮮日報名記入)

百貨店、藥局、小賣商化粧品部에서販賣하나 品切인때는 直接左記本社로 注文하십시오 送料는本社가 負擔합니다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三丁目 東洋發賣元 チイユーカムパニー 振替大阪八一五二番

連載野談

布袋記 (二十)

申鼎言 作 金熊超 畫

머슴살든임검(八)

울불이 도망한뒤에 왕께서는 일죽 죽이지못하신것을 매우한탄하심뿐 아니라 큰 화근으로 생각하셧다。

그래서 왕께서는 여러가지로 울불을 잡어 죽일 계교를 생각하시나 울불을 차질길이업슴으로 필경

『울불을 잡어 밧치는 자는벼슬을 식히고 재물을 만히 상주시겟다。』

하는 방을 써서 큰 거리에붓쳣다。

그리고 또한편으로는 사람을 잘잡기에 이미 늙은 군사한사람을 뽑너 울불을 산채로 잡든지、죽여서 목을 바치든지、양단간에 속히 밧치라는 엄한 명령을 내리셧다。

울불을 잡게된 솜씨은 방방곡곡에 랑자하얏다。

그러나 나라 사람들은 서로 엄을 삐죽러며

『울불서방님이 무슨죄가잇서 죽어히 잡어 죽여?。』

하며 섬혹 울불이잇는곳을 알지라도 몰른체하고 만일 울불을 만나면 딴사람으로 꾸며서 다른 나라로 도망식히려고까지 생각하얏다。

그러나 울불을 잡어 밧치면 벼슬도 식히고 상도 만히 준다는 바람에 울불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적지아니하엿다。

아때 울불이 제일 무서웁게 생각하는사람은 음모이엿다。

음모가 만일 자긔집에 머슴사리하는 사람이 그울불。그을불이가 즉 왕의 친조카。그을불을 잡기만하면 벼슬도 하고 상도 탈것。그뿐아니라 왕의친조카를 머슴으로 지독히 부려먹은것이 죄가되지 아니할까? 만일 울불이가 죽지 아니하고 잘되는 날이 잇다면 머슴으로 부리고 몹시 구박한것을 분푸리하지아니할가? 이런 사정을 아는때에는 누구보담도 번저 울불을 잡을 사람이 음모인까닭이엿다。

그런데 울불을 잡는중이라는 소식은 벌서 수실촌까지 들엇고 음모도 잘 알게되엇다。

그리자 비록 늙기는하얏스나 생김 생김이 퍽이나 현상꾸진 군사한사람이 동구에 들어서면서、

『울불을 어명으로 잡어라!』

하는 고함소리를 질넛다。

그 늙은 군사의 외치는 소리를 들은 음모는 사지를 벌벌 떨며 울불을 차젓다。

그런데 이 늙은 군사가 울불을 생사간에 잡어 바치라는 왕의 분부를 듯고 나와서

『흥。나는 비록 천한 군노(軍奴)가 되엇지만은 삼촌을 죽이고 동생을 죽이고 또 친조카를 죽이기커녕 삼촌이 기르든개。동생이라든말。조카가 보든닭。그런미물의 짐생이라도 건드릴 마음이 업는나。내몸은 벌서 늙엇지만은 내심장속에서 흐르는 피만은 붉은피。붉은 맑을수록 갑이잇고 피는 붉을수록 갑이잇는것。붉은 피가 빙빙도는 내손아귀로써 죄업는 울불서방님을 어떠케 잡어』

하면서 왕의 분부를 코 우슴을 첫다。

그리고 수실촌 동구에 들어서면서 큰 소리를 질으것은 울불을 잡으려는 뜻이 아니오 울불을 도망질치게 동기여 주려는 뜻이엿다。

그리고 그 늙은 군사는 울불을 잡지아니하고 일부러 둥겨 도망케한것이 발각이 되여 그죄로 죽는다할지라도 자긔의 늙은 목숨과 청춘이 만리가든 울불의 목숨과 밧구는것을 조금도 악갑게 생각을 아니하엿다。

그늙은군사는 이와가티 굿게 결심을하고 곳 음모의 집에들어가서 음모를 붓잡고 울불을 내노라고 호령하얏다

음모는 울불이가 어듸로 갓는지 보이지아니한다고하며 벌벌 떨엇다。

『이자식!。네가 잘을 편하자기 위하야 어제밤까지 연못가에서 맹꽁이 우는것을 금하고 잇든 울불이가 어듸를 가고 몰나。울불을 내놋치아니하면 울불을 놋친죄로 네목을 대신 베혀다가 상감께 바칠테야。』

하며 음모를 빰도 때리고 발길로 차기도하얏다。

늙은 군사가 이렇듯 음모를 닥다른는것은 음모가 울불을몹시구럿다는것을 괘심히 역인까닭이엿다。

그리고 늙은군사는 울불의종적이 어찌되엇슬 궁금히 생각하얏다。

「一九三六年쇼、보트」 유니버살作品「一九三六年쇼、보트」의 한場面으로 아이린、단과 우이닌자

幾百萬의健康兒를길러온光輝잇는實績을保持한粉末母乳

森永ドライミルク

適量의糖分을包含하여長久히保存할수잇고消化吸收도極히조라販賣도全需要의七割을占領

D-4 森永煉乳株式會社

味の素 아지노모도 登錄商標

울리집울리 맛이 이서

울리집의 울리 맛이조치 손님 만이와지 그거왜글래 울리집울리味の素처지

李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舗 株式會社 鈴木商店

子宮에게遺傳하는 淋疾……빨리 ネオヂリン(네오지린)으로곳치라

各有名藥店에잇슴 京城本町四丁目 株式會社 木村藥房

本社京販 電本(2)一五九八

頭痛이잘낫는名藥

有名한醫學博士 森田資孝先生推奬

ノーシン 노ー신

●머리가 갈러지는것가티 몹시 아플때!!
●바늘로 쑤시는것가티 골치가 아플때!!

그리고 머리가 아프지안트래도 過度한讀書로睡眠이 不足하거나 머리가무겁고 호릿터분할때나 술을過飮하고 餘毒으로 氣分이조치못할때나 언제든지잘듯는名藥입니다 만일頭痛으로 뜻뜰보는때가게시거든잇지마시고노ー신을꼭한봉마잡숫어보십시오 언제머리를 아랏든가? 하는듯김을 가질뿐아니라 아조머리가 明快해집니다 이러케기묘하게 잘듯는것이노ー신의 가장 자랑할만한 特徵입니다 平時에 服用하신대도 決코 害롭지는안사오니 安心하옵시고잡숫수시요 더욱 家庭常備藥品으로 언제나떨어치지못할뿐아니라 이러한 良藥은 아못조록 우리同胞에게 만히宣傳하야서 頭痛으로 苦生하시는분이게시거든 꼭이 노ー신을服用하도록가르처줍시다

노ー신은 어느곳을勿論하고 各國藥店에잇습니다 요사이노ー신과 비슷한 藥品이 만히나와사오니 잘못하면속히기쉬웁습니다 사실때 登錄商標帽子印잇는ノーシン에 잘注意하십시요

藥價	
四包入	二十錢
七包入	三十錢
十三包入	五十錢
卅八包入	一圓

發賣元 荒川長太郎合名會社 名古屋市東區京町二丁目 振替名古屋七五三番

猪印

全島를 安住의極樂國土로한다

日本產業最高賞綠綬褒章 御下賜

のみとり粉 (노미도리)

蠅、蚊、蚤、南京虫、油虫을 退治하라

C-3

本舗 護安住大藥房 大阪 大仁

泄瀉 腸內異常醱酵 不良食餌中毒 急·慢性傷가다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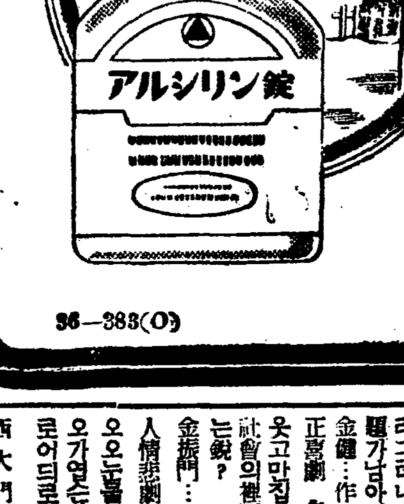
武田發賣品

【成分】銀炭末과監化銀硅酸을主劾分으로한糖衣錠입니다

아루시린錠은、腸疾患의原因이되는 腸內毒素의吸着解毒作用과가다루·泄瀉를이르키는催炎性物質을그가장微細한分子에吸着되야、그것을體內에排除식히는作用을갓고잇습니다。

또한아루시린錠은殺菌作用을갓고잇슴으로赤痢、腸지후스、腸結核의治療에잇습니다

アルシリン錠 (아루시린) 腸內殺菌·毒素吸着劑



價格 10錠入(三五錢) 30錠入(五五錢) 50錠入(一圓00) 100錠入(一圓八0) 300錠入(四圓00)

發賣元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關東代理店 株式會社 小西新兵衛商店 東京市日本橋區本町

36-383(O)

牛乳石鹸

十人十色의살결에맛는다

化粧하신 當身의 빗나고 아름다운若顔!

洗練된 三大特長
●刺戟性이업고
●살결거츠러움막고
●白粉이잘핀다、

本舗 大阪共進舍石鹸株式會社

東洋劇場

五月二十一日부터 晝夜二回

東洋劇場專屬劇團 喜劇座大公演

全景希、石飮佛、孫一平、金元浩 金鍾一、許未羅、金小鳥、李貞順 尹才薰等斯界名流를總網羅한朝鮮初有의喜劇團體로誕生以來京鄕各地에爆彈的센세이슌을이르킨바 이제南朝鮮巡業을맛치고第二回中央公演의幕을열게되엿습니다 옥어지는新條과갓치도發瀾한그藝題에注目하시라

洛山人作 喜劇 女軍太平記 一幕三場 안악네들이여無事하고도太平하시라그러나?그러나?다시생각할宿題가남어잇다

金健…作 正喜劇 名判官 一幕二場 웃고만집어치우지못할敎訓暗示!社會의裡面相、人間心理를解剖하는鋭?

金振門…作 人情悲劇 어데로갈거나 一幕 오오눈물업시볼수업는人情美談오오가엽슨나그네닭지는前雪嶺넘어로어듸로가려나?

西大門町 電光3 三一二番

朝鮮劇場

五月二十二日부터三日間午前十一時부터六時半까지鑑映七時半始映 封切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콜럼비아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監督팔바ー트하라ー ◎弓矢莊의慘劇 近代科學의純粹을蒐集한完全犯罪戰慄篇 一千萬人을突破한期待篇本格的怪奇映畫는이것

콜럼비아社超特作全發聲 百獸의王者 從來모든자映畫에無雙로人間과動物과의生活人間과人間과의生活더구나人間의感情生活!愛와惱惡의生活의赤裸裸한冒險實寫篇

松竹키네마社特作時代劇 正五郎兄弟

劇團黃金座近日公演

仁寺町 電光一二三六

第一劇場

五月廿一日晝間부터三日間大公開 每日三回晝夜興行 晝間十二時부터六時半까지鑑映、夜間八時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均一

超特作名畫提供週間 유나이데드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巨匠도로시아스나氏監督 大名篇 女優나나 妖星안나스텐氏美男子프레드릭마取人氏主演 梗槪、淫蕩한계집이라고貴婦人들은輕蔑하는巴里의나나그러나나나야말로깨끗한한가티사랑에全生涯를밧치고마는淸潔한娼婦가아니엿드나?

日活키네마社特作品無聲版 久保文憲氏監督 現代劇 霧の地下道 梅三四郎氏松浦築枝女史主演

米國FBO特作無聲 로이도인구라함氏監督 西部活劇 名馬天來 闘閃美도나오ー스氏主演 名馬시루바킹그君動演

여러분의 鍾路五丁目 電光三〇〇〇番

教育咸南에快報! 商工校設置具體化
商業會서期成準備委員會組織 不遠寄附募集에着手

【咸興】전조선각지에서 련해교육계의 페소식을 전하고잇는이때 오직 천축을 직히고잇서 섭섭한 늣김만 주고잇든 함흥에도 이제 남부끄럽지안흔 희소식이 잇다——지난이십일일 오후세시부터 함흥상업회(咸興商業會)에서는 동회관내에서 이십여명의 평의원(評議員)들의 회합으로 함흥에잇서 가장필요한 함흥상공학교(商工學校)설치에대한 평의회를 열고 여러가지로 토의한결과 위선준비공작으로 긔성회(期成會)조직을 협의하기로되여 그준비위원으로 김문선(金文善)고경식(高敬軾)한영호(韓泳鎬)씨등 이십명의 준비위원을 선거하야 긔성회(期成會)조직준비에 매진하기로되엿다 이문제가 이러나기는 지난삼월일일 함흥상업회 주최로 열닌 한유근(韓裕根)씨 공로위로회(功勞慰勞會)석상에 모엿든 함흥의 유지 수십명의 입에서 이구동성을 부르지젓든것을 계긔로하야 이래 함흥상업회가주체되여 동문제의 구체화에 노력하야 왓든것이라고한다。

이에대하야동준비위원회의복안을 들어보면 설립긔금(基金)은 이십만여원으로 예정하고잇스며 긔성회가 조직완성하게되면따라 곳 긔부행위의 인가를어더 긔부금 모집에 착수하리라고하는데 이제까지 교육사업에 냉담하든 함흥유지제씨들의 절대한분긔를 바란다고한다

寄生虫保持者! 全生徒九割以上
念慮되는二世國民의健康相 高城郡內各學校調査

【高城】금년봄에 고성군내 각공립보통학교아동들의 건강진단 상황을 보면 총아동수 일천오백명중 건강아동은 그 삼할에 불과하고 구할여는 긔생충(寄生虫)의 소유자인 영양부족아동이라하며 그중에도 충치등과 기타병도 상당히잇스나 놀낼만한 것은 긔생충이라한다

準健康兒 四八人
病兒肺結核及腹膜炎 三人
心臟辨膜症 五人
普通兒病 三三人

囑託白公醫談

지금고성각교생 기생충이 만타는데에는 심히놀내지아니할수업습니다 이후에 만약 긔회가 잇다면 한번대소변까지라도 철저히 검사하며 아못조록 어린이들의보건을 생각하며 나의희생적 정신으로 간이한 치료는하여주어 장래 제이세국민의 보건을 완전히하여주고십흐나 긔회가문제입니다。

京東記者團定總

【利川】경동긔자동맹에서는 지난십팔일 오후한시에 리천읍창전리(利川邑倉前里)에서 정긔총회를개최하고 의사를 원만히진행한후 오후네시에 폐회하엿는데 당일론의된 주요 의안과 개선된임원은 다음과갓다

一、新盟員承認件
二、盟員整理件
三、各地方特殊事情報告
四、京三鐵道期成後援의件
五、水原記者團과合併强化件

◇改選任員 執行委員長 張東潤 執行委員 兪仁濠 李圭相 金敦 ○宣鎭秀 卞澤相 洪密植 崔觀鎬 以上

男便이그리워 虛僞强盜告發

【平壤】십구일 륙로리(陸路里)에 강도사건이잇서서 긴장해잇는 평양서에는 이십일 새벽 요란한 전화롤「벨」이울리면서 강도가침입햇다는 고발이 잇서서 큰일이 낫다고 형사대가 달려가 조사한결과 평양부내 차관리(鈑貫里)김선권(金善權)의처 리씨(李氏)(二七)는 숨이 터에다어 방금남편도업는데 강도가 드러와 식도를 내여대인후 현금을 내이라고하기에 현금이업다고 답변햇더니 현금이 업술까닭이 업다고 재차협박하기로 엽방에 금지환도잇고 금비녀도잇스니 마음대로 가저가라고 소리를질럿더니 아모것도 가지지는안코 가버렷다고 이야기는하나 태도가수상한점이 업지안허 수사를 게시하는일방 리씨를 조사한결과 강도는 새빨간 거짓말 남편이 첩을어더두고 나아가서 일주간에한번식 겨우얼골을 보하므로 남편을 어이상 붓잡어두고저 허위의 신고를 햇든것이 판명되여 형사대에는 어이업는 숨을못고받엇다한다

利川農業實修校 不遠工事着手

【利川】리천 공립농업실수학교(利川公立農業實修學校)는 지난사월이십삼일 본군대월면 사동리(本郡大月面 沙洞里)공회당을비러 학생사십오명을 수용하고교수하는중인데 그동안 교사신축공작도 끗낫스므로 지난이십일 리천군청내에서 입찰하엿든바 장호원(長湖院)가등조(加藤組)가 공비사천구백오십원에 락찰되엿다하며 불원간 공사에 착수하리라한다

本報讀者優待

【西湖】본보서호지국은 설치이래 애독자제위의 열렬한후원으로 날로 진보발전됨을따라 그감사함을 만분지일이라도 보답키위하야 본보서호지국 사진반과자 최봉치(崔鳳致)씨와교섭하야 본보애독자에한하여 반액인 이십사일부터 일주일간을두고 촬영하게되엿다한다

問題中의端豊線 廣軌營業線으로
工事費도七萬圓으로增額 着工期는來月初?

【咸興】영업선으로하느냐 전용선으로하느냐 하는데 일반의 주목을끌고잇슬뿐 아니라 단천군민은 단천군에잇서서 사활문제가된다고하야 군민대회를 열고 요로당국에 진정까지하고잇든 문제의 단풍선(端豊線)은 당초 회사 당국에서 전용선으로하기로되여 공비 백륙십만원을 예산하엿든바 이번 당초의 계획을 일변하야 총공비 칠백만원 으로 광궤로하야 함경선 국선과 련락하기로하고 또한 영업선으로 하기로 결정되야 명춘전 약구사장과 함남지사와의 사이에 양해가 성립되엿다는데 착공은 래월초 일중 정식인가수속을 하리라고하며 근간 설립되엿다는데 착공은 래월초라한다

寒波도漸次退陣 鰛魚大群漸北上
咸南沿岸도大豐豫想

【咸興】수온이나저 온어(鰛魚)가 몰려오지안는다고 목하 공황이도리라고 수만혼어민들이 근심과초려중에 잇는이때 돌연온어군이 함남연안에 밀려온다는 쾌뉴—스—원산수산시험장의 보고에의하면 사오도내외의 한수대(寒水帶)는 몃츨전부터 물러가고 십도내외로수온을나왓슴으로 인제는 온어(鰛魚)가 몰려오리라는데 목하 강원도 장전(長箭)항 이십마일 연해에는 약사천평가량되는 망범위에 빠처 온어의큰무리가 집중하고잇는때 수십일전부터 그온어군이 점점함남도연안을향하야 북진(北進)하고잇슴으로 실여일내외간에는 함남도연안에도 큰풍어이잇스리라고한다

비오는밤同時刻 平壤에强竊盜騷動
眼鼻莫開의平壤署員

【平壤】평양부외 률리(栗里)강도사건범인이 아즉 체포되지안허서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진 이때에 십구일 비가 쏘다지는 오전두시오십분경 평양부내 륙로리(陸路里) 비료상(肥料商)한선근(韓善根)(二七)의 집에 식도강도가 침입하여 주인 한선근의 바른편 팔을 찔러 중상을 가하고 현금 이십팔원과 금시계한개를 강탈도주한 흉괴사인 강도사건이 련거퍼 발생하여 수사진은 가일층 긴장해잇든터인데 범인은 아조 장대한 체격의 소유자엿섯다고 한다。

×

이것도 역시 십구일 새벽 두시경 부내 신창리(新倉里) 석련만(石練萬)의 집에 괴도가 침입하여 손금고두개 현금 륙원 사십전어드러잇든것을 가지어간 사실이 강도발생과 동시각에연출되여 수사진은 동시에 범리어저잇다

×—×

이것도 십구일 강도사건이발생하든 오전두시십분경 부내 염전리(鹽田里)재산가 채원현(蔡元鉉)씨의집의 집웅을 타고넘어 드러와 방문을 두드리는 괴한이잇서서 고함을 지르는바람에 도다시 집웅을타고넘어다라낫다 이중상중으로 긔습을놀래인평양서원이 현장에달려가서 수사한결과 그이웃집에잇는 잡화행상인 김병남(金炳男)(二七)으로판명되여 체포햇는데 무엇때문에 침입햇섯는지 자긔로서도 알수 업다는 부득요령의 자백을하고잇서서 정신병자가튼 의심도 업지안흠으로 정신감정을 하기로되엿다

地方人事

▲金順吉氏(義州公普訓導)義州公普勤人事次本報義州支局來訪
▲全奎祐氏(江華產業組合技手)新任人事次本報江華支局來訪
▲李福淳氏(江華漁業組合理事)同上
▲李炳瑞氏(開豊郡庶務主任)新任人事次 本報開城支局來訪
▲金大植氏(開豊郡廳書記)同上
▲韓麟氏(大邱專賣支局河東出張所長)新任人事次 本社河東支局來訪

徐龍鉉氏特志

【延安】연백군 연안면 연성리 서룡현(延城里徐龍鉉)씨는 연안면 빈민에게 등급 륙십오등에 사백사십칠인분과 륙십륙등에 오백삼십팔인분 합일천팔십오인분의 호별세 이백구십륙원 팔십오전을 지난 십구일에 대납하엿슴으로 씨의 아름다운 특지에 면당국과 일반면민의 감사칭송이 자못 놉하잇다고한다

公州本町에大火 損害額二萬餘圓
廿日午後十二時頃(原因未詳)

【公州】지난이십일밤중십이시경에 충남공주읍본정에잇는 김갑순(金甲淳)씨소유인 시장사무소(市場事務所)에서 발화하야 그 사무소를전소시키고 극장(劇場)과 부근가옥까지 연소되는것을 소방대의진력으로 진화되엿는데 발화는 극장에서 사용한활동사진기계와 필림전속을 전긔사무실대청에두엇는데에서 발화하엿스나 발화원인은 미상하다하며 손해는 현금으로 二萬백여원과 시장에서 바든채무문서와 그집에가리잇는 백창긔(白昌基)씨약방까지 전부태워버리여서 총액이 이만여원에달한다고한다

春窮期의細窮民에 農糧米貸付開始
慶北道內七萬餘戶에

【大邱】국빈자를 무척괴롭게하는 춘궁기!이시절이면 우리농촌에는 산나물로써 련명하고잇는 생활상이다 경북도당국에서는 이시긔에잇서 비절참절한세궁민을 구제하고저 작년부터 농량미(農糧米)를 대부하는 제도를 실시하야왓다 금년은 자금을 느리서 총액사십만원으로써 칠만륙천백호의 세궁민을 구제하고저 대부의 준비공작을하고잇든바 근일에 도내각면에서 일제히 대부를 개시하엿다한다 상환은 금년가을에잇서서 현금이나 현물로써 갑기로하엿다한다

東部住民宿望인 小賣市場建設

【淸津】청진동해안방면은 조선인이만히거주하는곳으로 물화거래가 빈번하고 일용품매매가만흔곳임에불구하고 우금시장이업서서 불편이막대함으로 동주민들은 당국에 시장설치를 진청하는일방 각방면으로 노력하든바 동주민의요구가 급기야실현케되얏다한다 즉 부에서도일안중에잇든 동해안일용품시장은 그간공사입찰중이든바 최근에와서 흑하조(黑河組)가 사천육백원에 락찰하야 즉시 공사에 착수하야오는 칠월말일에는 준공이되리라한다。

옥어진綠陰下에 密陽市民運動會

【密陽】밀양행사로 거행해오든 밀양(密陽)시민대운동회가 근년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지되어잇다가 작년가을에 일부인사의노력으로 개최는하엿스나 일반시민들 무시한점이잇다하야 만흔파란이잇섯든바 오는오월이십사일에는 이번은 새로창립된 밀양운동구락부(密陽運動俱樂部)의 주최로 춘긔시민대운동회를 개최하게되리라는데 역시 그준비 진행이 주최측의 통단에맛겨저 전시민적이아니라는 비난을받고잇서 작년과다름없는 불쾌한결과나나지안홀까 우려되든바 동운동구락부원들이 각방면으로분주하야 원만한시민운동회를 만들고저 노력중이므로 이번운동회만은 원만히 유쾌하게진행되리라고긔대된다

本報支局主催의 兒童健康審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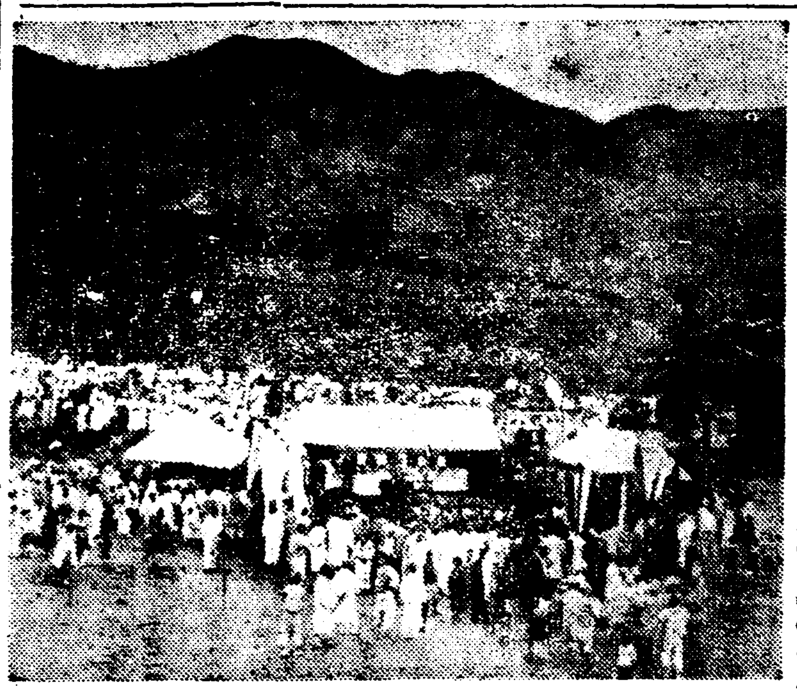
【統營】본보통영지국주최 각의원후원아래 개최된 통영아동무료건강심사회는 예상외의 대성황리에서 끄츨마치게되엿는바 총수 진자수 사백팔십팔명중 입상자는 이십사명 표창식은 오는오월이십사일 하긔위생강연회석상에서 발표하리라한다 그리고심사결과는 다음과갓다

優良健康兒 四五人
準優良兒 五二人
準準優良兒 二六人
健康兒 一四○人

怨恨의是日! 悲慘의是日!

遭難兒童聯合葬
是日也! 全市에暗雲이低廻 日月이無光、血淚滂沱

【靈光】령광곡동교례배당의 도괴로 말미아믄 령광유치원아동 조난사건은 루보한바 잇거니와 이는 실로 근래 우리사회에 볼수업슨 끔직한사변인만치 지난 십구일에 조난사망아동합동장의를 마첫는바 조난당일에 조직한 조난아동합동장의준비사무소에는 각각으로 혈루(血淚)에무친 조위금품이 답지하야 금품수부와 조위객응접에 동준비사무소는 동일밤신시경에 이르기까지 비상한분잡을 이르키엇든데 동야까지에 수부한 조위금만이 실로 삼백구십여원의 다액에 달한바 그중에는 어린동생의 무참한 조난에 자극되어 일전이전을 그러모아온 령광공보교 생도일동의 조위금 십원이 일반의 흉금을 새로히 한것을 필두로 각관공서 직원급 각민간 단체의 각계 각층에서 물밀듯한 조위금품이 수부건수 일백 이십구건 연인원으로 일천 삼백칠십 구인을 헤이기에 이르럿스며 그외위인 지난 십구일의 합동장의에는 전시는 물론하고 조의를표하얏스며 이날이른새벽부터 시작한 구즌비가 추추이내림에도 불구하고 영광읍의 령광공보교운동장과 시가에대에 이른아츰부터 비를 무릅쓰고 참집한 팔천여명군중의 도열속에 동일오후한시의조종(弔鐘)을 신호로 교촌리、도동리 남천리(校村里、道東里、南川里)등지로부터 무참한 어린동(童)을 이 마즈막 젊은그들의 보금자리를 떠나나와 유치원 동창회원 령광체육단원 장의위원의 엄숙한호위속에 여섯개의 조그만 령구(靈柩)가 동에서 남에서 서에서 영결식장으로 비참한해를 울지어 모아들자 연변에 모여선 군중으로부터서는 목메호흡오열의소리가 터저나와 령광천지는 실로 암운이 저회하고 혈우(血雨)가 림리한바잇섯서 산천초목이 오히려 무색하얏스며 령구의 식장도착을 기다려 지난날의 부상아동사명도선연한 유치원아동 삼십여명을필두로 령광공보교생도 소학교생도들의 뒤를이어 각사회단체 각관공서원이 속속히장경함한후 동창의 위원장인김도숙(金道淑)씨의 식사를 비롯하야 유치원장 편진호(片鎭鎬)씨의 비참한 조난상황보고(遭難狀況報告)가 잇섯고 위원장의 예도사가끗나자 조사에들어 유치원대표 공보교생도대표의 조사를비롯하야 각관공서 각단체 대표의조사 십팔통 멀리는 해외에서 경성 목포 대구 광주등지로부터 언론긔관대표 유치원 재외 거류자등의 발신한 조전 실록통의 랑독이 잇슨후 유족대표 신일우(遺族代表 申一雨)씨의 피눈물에 저즌 사사가 잇고 일반의 소향을 위원장이 대표하야 올린후 동오후세시십분경에 비장한 장렬이 진행을개시하야 령광읍의 남쪽 수퇴산(水退山)등으로 선정된 묘지로 향하야 떠낫는데 그들의 묘지는 유족의양해를 어더 가른처소에 일렬로 매장하야 여섯개의 묘표가 영원히 이미죽유한 참변을 긔념하고잇다한다



◇寫眞…靈光死亡兒童永訣式場

昆陽

全朝鮮聯合弓術大會

▲時日 陰四月十一日至十三日
▲主催 昆陽鳳鳴亭
◇會所 昆陽鳳鳴亭
◇後援 朝鮮日報昆陽支局

愛慾의彼岸 【16】

李光洙 作 金康穆 畵

「아부지는 웨 그러케 문학을 미워하서요?」

하고 혜련이가 항의를 한다。

「글세、그 문학이란 다 무어 하자는게냐。이 방문 세상에 소용잇는 책만 보재도 다 볼 수 업는데 그런 씨득꺼득한 이야기 책을 보고잇서?」

하고 김장로는 아주 업격하다

「그럼 학교에서 문학은 웨 가르처요?」

하고 혜련이가 룰재ㅅ번 항의를 한다。

「그러길래 널러려도 가사ㅅ과나 배우라고 그래지。문학이나 음악이니 그림이니 그게 다 무에란 말이냐。그까진것은 배워서 무엇에 써? 그래 중등교원 자격을 준다니까 직업은 되지마는」

하고 김장로는 대단히 못맛당한 모양을 보이며、

「문학이니 음악이니 또 그림이니 그런것들을 배우니까 계집애나 사내나 다 방탕해지거든」

하고 세상을 근심하는 한숨을 쉰다。

「아아。어쩌면 아버지가 저러케 완고서?」

하고 혜련은 어이업는드시 웃는다。

산ㅅ새가 어듸서 귀여웁게우는 소리가 들린다。

「아부지 저 소리 들으시우?」

하고 혜련이가 문밈에게 눈ㅅ짓을 한다。

「거 산ㅅ새 소리로구나」

하고 김장로가 두리번두리번소리 오는데를 찾는다。

산ㅅ새는 소리를 끄친다。

「그 소리가 돗기조치안하요?」

하고 혜련이가 또 문밈을 보고 웃는다。문밈도 혜련의 뜻을 알고 고개를 돌리며 웃는다。

「돗기조치」

하고 김장로가 일어난다。

「아부지。그게 음악이야요」

하고 혜련은 깔깔 웃는다。

「조것들이 날 놀려먹네」

하고 김장로도 웃는다。

「아부지 터 올라가서요?」

하고 혜련이가 히끗히끗한 아버지의 머리카락 밋동을 바라보며 못는다。아버지가 점점 늙어가는것이 혜련에게는 무척슬펏다。

뒤를 따르는 김장로의 마음ㅅ속에는 오직 문밈만이 잇섯다。그 불그레하게 상긔한 얼굴、토동하면서도 조화 잘 된 몸、더구나 끄님업시 웃음이 떠다 스러젓다 하는 검은 눈、웃을 때에는 유난히 반달가티 보이는 커다란 입、그 걸음걸이 따라서 움지기는 몸과 옷의 리즘——이런것은 김장로에게 누룰수 업는 애착—터 적절하게 말하면 탐심을 일으켯다。

「그러치마는 문밈은 딸의 동무 딸과 가튼 나이——나와 그와는 딴 시대ㅅ사람」

이러케 생각하면 김장로는 슬펏다。삼십년 차이!

「늙은것의 망령」

하고 김장로는 스스로 저를 비웃엇다。

그러면서도 손이라도 만저보고 십흔 생각、그 동그스름한 어깨라도 쓸어보고십흔 생각、품에 안아보고 십흔 생각——일즉은 이러한 생각이 날 때에 하나님이 내려보시지나 안나 하고 끄린 때도 잇섯지마는 하나님의 존재를 밋지못하게 된 오늘 날에는 김장로가 꺼리는것은 오직 세상뿐。명예와 금전의 손해뿐。

젊은 사람들의 뒤를 따르는 김장로의 젊은 번뇌를 품은 늙은 몸에서는 땀이 나고 숨이 찻다。

「너의들 다려 아니 아프냐」

하고 김장로가 단장을 들고 나선다。

「얼마나 걸엇다고 다리가 아파요。금강산 비로봉에도 올라 갓걸」

하고 혜련이가 앞을 선다。

문밈은 김장로의 앞헤 서기가 미안하여서 머뭇거리는것을 김장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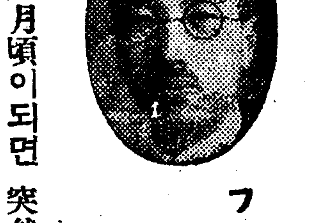
「어서 너희들이 압서라」

하여서 문밈도 김장로의 압흘 섯다。

김장로는 데여섯거름 떠러저서 두 여자의 뒤를 따랏다。두 여자는 늙은 김장로를 이저버린듯이 조잘대고 끼득거리며 고개를 오르고 비탈을 돌고 개천을 건너서 망월사를 향하고 굴작길을 올랏다。혜련의 날신한 모양과 문밈의 통통한 모양이 함해다 홀러젓다 하엿다。

熟眠할수잇서서健康하다

フルチ錠創製者前 (前東京 吉原病院長 吉原病院) 小屋良明 先生



每年五六月頃이되면 突然히前記의症狀으로 苦惘하는분과또 婦人에게는 月經이不順한기수워서 白帶下早產流產等으로苦惘하는분이만허집니다이것은至今까지알지못햇든『瘀血』의猛毒을 이즐때에 여러가지病의基因이되는까닭입니다。前記의 病狀이 進行함을따라서 神經系統과 關節 心臟 腦 中樞等을 侵犯하야 무서운 腦溢血 中風 狹心症이되여 死의轉機를招來하는危險이됩니다、이무서운『瘀血』의 病毒을 어떠케깨끗이體外에 排泄할수잇는가 永年의臨床實驗과 古醫學의 神秘를現代醫學으로再檢討하야『體得한瘀血療法』을 一讀하신後에 治病의 一助가되기를切望하는바입니다。

흐린눈을快癒하게하야 半身不隨가至今은大端히나엇다

大分縣下毛郡 石川久吉

小生은三年前부터 血壓이놉고머리는무겁고눈이흐리며 눈앞이가무거워지면서耳鳴이생기는故로中風의前兆로생각하고여러가지醫藥으로治療하여도듯지안허서드디여昨年에半身不隨症이되여 今日까지只今滿一個年이됩니다。(中略) 前月以來友人에게서말을듯고 試驗的으로フルチ錠을服用하여보니까 意外에도効果가顯著하여지므로 二個月間服用하니까 至今까지보이지안튼 右眼이左眼과가티 잘보이고兩耳의耳鳴眩氣도업서저서 밤에는熟眠할수잇서서半身不隨로 起居도滿足히할수업든것이 至今은二三町가량은步行할수가잇서서 フルチ錠의效果에는 집안이全部놀래고잇습니다(下略)

黑便과 瘀血

古醫學의眞髓와 現代醫學의理論의一致가나흔 小屋先生創製의フルチ錠은『瘀血』을融化作用하야 體外에排泄하야 血行을調整하고 黑便이나오지안흘때까지 保養하면自然히快癒되는病은 ...

耳鳴과眩氣를이즌 이기쁨(病毒)

和歌山 田瀬なつ子

(前略) 여러가지로先生님의厚意를感謝하여 마지안습니다。最近은 苦悶하든耳鳴도 眩氣도 全快되여 顔色에 붉은빗까지돌고 手足도더위지면서 그때 フルチ錠을服用하기始作하야 二個月밧게되지안치만 病毒도漸漸快하여지는것갓고 月經도中止되여 ... 流產하는體質 ... 大端히 나혓습니다 (後略)

上氣眩氣부름에苦惘 (梅毒性發疹)
頭重과耳鳴·肩臂痛

梅毒胎毒이잇는분은 瘀血(오래된梅毒)을깨끗이無毒하게하면 熟眠할수잇서서健康하다

五六月頃은 發病의危險期

健康の秘訣 血液の淨化は 古医学の神秘と現代医学で闡明した ふる血の新療法とは?

必讀 申込所 古醫學研究所 古醫學에서新發見 無代進呈 ハガキで申込

輸出伸力鈍化 輸入增勢顯著
貿易前途樂觀不許

中旬貿易은 輸出七千百四十四萬六千圓 輸入八千五百九十二萬六千圓 差額入超一千四百四十八萬圓으로 前旬에 比하야 輸出入 모다 增加하얏는바 特히 輸入增加가 顯著하얏슴은 結果 入超額도 七百餘萬圓을 增加하얏다 輸出入轉換期임에도 不拘하고 右와如히 入超가 增加한것은 主로 棉花의 輸入이 增加하얏기때문이다 이는 畢竟 一時的現象으로 獨特한 原因에 基하는것은 아니다 따라 全體的으로는 輸出期에의 轉換과함께 輸出入狀態도 順調로 調整되리라고 보인다 그러나 一般的傾向으로 最近의 貿易狀態에 對하야 注意할것은 大體로 輸出의 伸力이 鈍하고 特히 이에 對한 輸入의 傾向은 非常時에의 影響을 反映하야 漸次 增勢가 顯著되고잇는것으로 此際의 一般傾向은 輸出期에의 轉換期에 잇다고는하나 今後의 日本貿易에 當然 暗影을 던지리라고 憂慮하지 안흘수 업슬것이다 따라 前年까지와 가티 貿易界에 樂觀的 好調를 期待함은 若干 無理할것이다 即 輸出에잇서서는 海外에서 現在 問題의 焦點이되어잇는 法貨의 動搖와 그以下 金融으로부터 오는 여러가지影響은 거의 問題시할만한것이 못되나 全體的으로 生絲、綿布를 비롯하야 人絹織物等의 輸出伸力이 鈍化하고 輸出伸力도 現狀以上을 期待할수업다 大體로 左와如히 輸出伸長가 國際的關係에서 乘離時期에 際하야잇는點을 考慮하면 輸出의 前途도 하든 日本輸出貿易의 前途를 자랑할만한 事情은 업는 狀態에 逢着하야 잇다고하지 안흘수업다 左統計는 그間의 事情을 闡明하게 말하는것일것이다。

即 今年五月中旬까지의 輸出累計는 前年同期에比하야 二千八百餘萬圓이 增加하얏슴에 比하야 輸入은 實로 一億一百餘萬圓이 激增하얏다 重要商品別輸出品目別內譯은 如左하다 (單位千圓)

年初以降五月中旬까지의 累計

◆輸出

		前年同期比
小麥	八〇〇五(十)	六六〇二
綿織物	一(三五)(十)	四四八
綿織絲	五六、二二(十)	三六八
生絲	三六、二六八(十)	六五五
數量(百斤)	一〇六、七五(十)	八〇二〇
綿織物	一二三、六〇(十)	一〇〇、五三九
人絹織物	四六、五五(十)	一六、〇八
메리야스	一九、〇九(十)	一四〇六
小計	三五六、四二(十)	一〇六〇
一般雜品	三七六、六七(十)	一〇八、一二三
合計	六九六、六九(十)	七七、六九六

◆輸入

小麥	一三、三〇(十)	一、五八九
豆粕	二一、〇七(十)	一〇、〇七五
棉花	三七八、〇三(十)	八九、六三〇
原油及重油	四七、六六五(十)	一四、五六三
數量(百斤)	九六八、六四(十)	八八、四四一
羊毛	一〇六、六〇(十)	六九、二〇二
鐵鋼	一〇九、五〇(十)	八九、八〇二
木材	一五、五〇(十)	一二、六五〇
小計	七五四、五三(十)	一四〇、一五五
一般雜品	二八四、七五(十)	八八、〇五五
合計	一、〇八六、六九(十)	一〇一、一〇一

大藏省發表=五月中旬日本對外貿易狀況은 如左하다 (單位千圓)

中旬入超	一四、四八〇
前年同期入超	四、九二〇
一月以降入超	二八六、〇五九

前年同期入超 一九三、六三〇

中旬의 內外地 對外貿易은 本表와如히 輸出은 前年同期에 比하야 六百十九萬六千圓이 增加하고 輸入은 一千二百七十五萬六千圓이 增加하야 輸出入合計에잇서서는 一千八百九十五萬二千圓의 增加로 되고 또 一月以降의 輸入超過額은 二億八千六百五萬九千圓으로 되어 前年同期에比하야 九千三百四十二萬九千圓의 超過이다 다음에 日本內地의 中旬輸出入貿易은 輸出에잇서서는 綿織物 人絹織物이 增加하얏스나 生絲는 減少하고 他方 輸入에잇서서는 小麥及 鐵이 減少하얏을뿐으로 其他는 모다增加하얏다 (單位千圓)

地方別

地方別	輸出	輸入	出入超
橫濱	六、二四一	一〇、二六	[illegible]
神戶	二三、六八六	二三、九八六	[illegible]
大阪	一八、五六	二三、〇四	[illegible]
長崎	一、〇三五	一、六五〇	[illegible]
門司	二、二四四	三、五〇〇	[illegible]

名古屋	六、二一〇	六、二一七	[illegible]
其他(樺太含包)	五、二一六	一〇、四三一	[illegible]
日本內地計	六八、〇〇〇	八三、一六五	[illegible]
前年同期	六一、八〇〇	七〇、六〇六	[illegible]
朝鮮	一、六七〇	一、五七〇	[illegible]
臺灣	八一	三〇	[illegible]
外地計	一、七五一	一、六〇〇	[illegible]
前年同期	二、〇一六	[illegible]	[illegible]
一月以降累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前年同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旬合計	七一、四四六	八五、九二六	[illegible]
前年同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月以降累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前年同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春鐵道創設 迂餘曲折難免
朝鐵、兩警察部에서斡旋이나 自動車業者態度强硬

京春鐵道의 敷設計劃은 殖銀進出에 依하야 近間 創立準備委員會를 開催하기로 되엿는데 右鐵道敷設에 重大影響을及할 京春間과 春川을中心으로한 奧地間에通하는 自動車路線의 買收에 關하야서는 뻐스·트럭이 모다 有利路線이만큼 自動車業者側의 態度가 자못强硬하야 全路線買收에는 二百萬圓이라는膨大한 額을 要求하고 잇슴으로 이點이 右鐵道敷設의 最大癌이라고 할것으로 이斡旋의勞를하고잇는 朝鐵을비롯하야 京畿、江原兩警察部에서도 目下中으로 創立委員會 開催까지에는 相當한 迂余曲折을 經할것이 豫想된다한다

十五萬株公募 今秋着工豫定

京春鐵道創立事務所에서는 六月三四日頃 創立委員會를開催하고 正式으로 軌道敷設의 免許申請을하기로되엇는데 資本金은 旣報와如히 一千萬圓이오 株式은 總株二十萬株、額面一株에對하야 五十圓인바 拂込金은 一株에對하야 五圓으로決定하얏다 右에關하야 創立委員은말하되 即五萬株는 江原道知事의斡旋으로 地元民이 引受하고 四分의三의 十五萬株는 公募하게되며 實殘은 全部殖銀에서 引受하기로 되엇는바 十五個年間은 年六分의 政府配當保證이 잇슴으로 低金利時代의 今日有望하다고 생각한다 事業資金은 百萬圓을 拂込金으로 充當하고 其他 殖銀으로부터 借入하기로 되엇다 會社의 創立은 今秋로될터인바 十月着工前에 諸準備를 進行할터이다 完成은 三個年後로될것이며 開業後는 鐵道와 合議한후 現在의 京春間의 주력 뻐스問題를 解決할생각이다

殖銀의 勢力尨大
全面的으로 産業機關掌握
獨逸式銀行經營方針

朝鮮의 金融最高層인 朝鮮殖産銀行은 獨逸式銀行經營의 大方針에依하야 各方面에 産業資本을 融資하야 朝鮮産業發展에拍車를 加하고잇는바 일즉이 朝鮮貯蓄銀行創立、朝鮮製鍊會社、日本마네사이트、日本高周波重工業會社의 創立에 積極的援助를 하엿슬뿐만아니라 傍系的整理援助로는 漢城銀行 更生策、不二興業會社의 根本的整理、滿開拓의 整理等을行하고 今回는 朝鮮郵船의 一千萬圓 大增資、京春鐵道의 株式引受等 産業機關의 全面的援助를 行하고 잇스며 金融機關으로는 朝鮮信託、米穀調節에는 米倉會社、其他 北鮮製紙等으로 殖銀의 勢力扶植은 實로尨大한것이잇다 其他는 朝鮮特殊鑛物의 採掘事業計劃과 그金融方途에對하야도 考慮中이라하는데 殖銀의 그와가튼 獨逸式銀行經營方針은 斯界의 注目을 끄는터이라고한다

◇…寫眞은 朝鮮産業金融界에 君臨한 朝鮮殖産銀行本店

産組創設十週年 記念大會開催

朝鮮의 産業組合도 組合令施行 以來 十個年에 達하야 現在組合數九十三組合、組合員十五萬人에 達하고 特히 近年 協同組合의 躬擁으로 旺盛한 事業發展을 招來하고 잇는데 이組合令 公布十週年을 紀念하야 總督府各産業組合서에는 今秋 十月中旬을期하야 京城에서 十週年紀念産業組合大會를 開催하기로 決定하얏다 會期는 十月中旬 豫定인바 이機會에 産組功勞者의 表彰을 비롯하야 品評會 講演會等을 할 豫定이다

春蠶第一回豫想
比前年四分의增加

本年春蠶掃立期는 自五月四日至六月二十五日로서 南朝鮮地方은 自五月上旬至五月下旬 中朝鮮地方은 自五月中旬至五月下旬 北朝鮮地方은 自五月中旬至六月下旬豫想이다。

蠶種掃立 掃立總數量은六十五萬三千六百三十三枚로 前年에比하야 二五、〇〇八枚(四分)의 增加이다。이것은 地方別로보면 忠淸北道의 三分二厘減을除하고 其他 十二道는모다 增加되어慶尙南道 平安南道의 一割三厘를 最高로 全羅南道의 八分二厘 咸鏡北道의 七分一厘 平安北道의 六分九厘 咸鏡南道의 六分五厘 그다음黃海道의六厘가 最低이다。

桑葉繁茂 狀況은 平安北道의 多少不良임과 京畿道 慶尙北道의 一部地方의 寒凍害가 잇슨外에良好하다。

蠶兒 의 發育狀況은 不明又는未定의道가잇스나 一般으로 良好하다

社外品亂賣 硫安遂崩落
餘剩品三圓四十錢

朝鮮內硫安市勢는 日本內地低와 實需側의 先低豫想賣로 漸落步調를 거려 市況이 軟化하고잇는 대 朝窒外의 內外安特約店側의 高價契約品中 受渡不能에 路한 餘剩硫安을 三圓四、五十錢가량으로 投出하야 全朝鮮一齊히慘落하야 今朝 朝窒은 三圓七十錢以下賣를 躊躇하고잇슴에도不拘하고 最低 朝窒品三圓六十錢 日本內地品三圓四十錢으로 高價에서 一圓五十錢乃至 一圓八十錢의 低落을 示하게되엿다

肥料統制令 起草急行
同時施行코저

重要肥料統制法은 議會通過를기다려 肥料新年度의 八月을期하야 實施를目標豫定인데 이와呼應하야 朝鮮의肥料統制는 旣報와 如히 朝鮮內 特殊事情을 濃厚히한 別個法令을 制定하려고 目下殖産、農林兩局에서 案을講究하고잇는바 同令은 內外地 同時施行할 必要가잇서 八月까지는 審議室과 法制局을 通過식힐必要가 잇슴으로 總督府에서는 同法令의 起草를 急히하고 잇다 그리고 法令의內容은 日本內地法中 朝鮮에 關係업는事項을 削減하는程度로 施行細則에잇서 朝鮮肥料統制의 特殊性을 加味할터이라한다

新繭出廻
沼津初取引卅日

【沼津電話商通】全國養蠶家가 注目하는 沼津繭市場의 初取引은 豫定보다 一日느저 三十日開市될 豫想인데 此初取引을 압두고 二十一日夕刻 伊豆의 西海岸 戶田村으로부터 重要한 新繭이 나리엇다 同日은 沼津市場으로부터 古橋技師가出張하야 鑑定하얏는바 繭質六分、繭層의 厚度等 매우좃치서 繭量十四匁은 確實하다고 豫定되어 新繭을 돌려싸고 歡聲이올리엇다

日本綿布關稅를 米國서大幅引上

【華盛頓二十一日發同盟】米國政府는 日本綿布의 對米進出을 抑制키爲하야 日本側의 自發的輸出制限에 對하야 交涉中이든바 右는 이번 드듸어 交涉이 決裂되게되엿다 따라 第一스텝으로 大統領은 現行稅率보다 五割以內引上 即 關稅法第三百三十六條에依한 關稅引上의 權限을 大統領에附與한 關稅委員會의 報告에 基하야 또는 二十二日 大幅의 綿布關稅引上을 公表하얏는바 그骨子는 如左하다

一、關稅引上은 中番手綿布로 製織하는 綿布에 對하야 行하고 新稅率은 從價三割五厘에 及하야 現行稅率은 從價二割三分八厘三毛 乃至 三割五厘이므로 新稅率은 現行率에比하야 四割二厘가량의 引上이다

一、新稅率實行은 六月二十日

그런데 關稅引上影響에 關하야 如左히 말하얏다 이번의 關稅引上에 依하야 影響을 受하는 範圍는 昨年中에 各國으로부터 米國에 輸入된 綿布數量의 五割八分에 及하며 日本으로부터의 輸入數量만에 對하야 말하면 九割은 影響을 受하게될것이다

米日爲替保合

【京城二十一日發同盟】今日의米日爲替는 前日과 比較하면 賣二十九弗十一仙三으로保合이다

東京爲替(二十二日)

	賣	買
對米	二十九弗十六分一	二十九弗八分一
對英	一志二片三十二分一	一志二片三十二分三

取引停止

(五月十九日) 請負 京城府西木町一七八 藤澤英雄▲請負京城府西木町一七八 合資會社藤澤工務店 代表社員 藤澤英雄

茶淡茶說

殖銀은 朝鮮産業開發?의 特殊使命을 가진터이지만

○모든方面에 融通的으로 實權을 掌握코 잇는것은 世間周知의 事實

○이번에는 京春鐵道를 맡는다고 計劃

○自動車業者들의 態度强硬으로 波瀾難免이라고

○殖銀王國의 籠絡을 차려서라도 들궈주고 買收하지 슬겅할것인지

○日本綿布關稅를 米國서 大幅引上키로 決定하얏다고

○작구 逐出 當하면 낭중에는 어듸로 갈가? 身勢타령이 나오기 쉬울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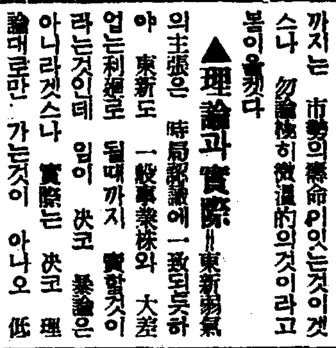
商況(廿二日)

株式 少堅後에 伸惱

前場少高 大阪當限繰上納會平穩强調好感으로 買氣가엇서 諸株少高이엇스니 東新百三十七圓六十錢、鐘新百五十三圓丁에올느고 結局昨後引에比하야 東新一圓高已七圓丁 日産不變이고七十三圓丁 大新七十五圓丁 朝新二十六圓八十錢 朝石十九圓丁에 各大引되고

◆東新 一三〇(寄) 一〇 三〇 一〇 二〇 … [illegible]

後場伸惱 後場은 大阪長期休會로 早引이엇는바 東新六圓四十錢、日産二圓八十錢 大新四圓九十錢에 伸惱로 少軟大引



(株)……大阪當限繰上納會好感으로一高 ▲만마치안흐름이容易히逆轉될것가지안코 또東京서十枚幣이 東新을작구賣한다니 大小軟派의 總聽上이結局은 잇고말것이아닌가 ▲各種好條件下에잇는 事業株는 當然買케될것으로 初夏의 好市勢가展開되리라고 期待하는便이잇고 지금 그前兆가잇다고 ▲特議閉會後馬場財政의 全貌가次次 나타날것임 떨어再燃하가업슬지 이것이걱정으로다마는……

(米)……一段高價를 示할듯하든市勢는 又復伸惱하야 十錢下을反落、結局保合乃已▲問題의當限戰은 掉尾一振의 高價를示할것으로 觀派는 捲期心으로 不伸不押하얏을보면 買方의 期待는 此邊三十錢을中心으로 하엿든바이나 此邊에서 終始하다가 ▲本月은 此邊에서 終始하든모양으로 納會하기로하고 來月에入한後의 市勢는 또한 何如할모양인가▲來月부터는 天候의 如何로써 勝負를 決하게될 模樣이엇다 本年天災戰에 勝者는 誰? 그누구?

大株繰上納會

大株長期五月限은 決算期關係로 二十二日 前場繰上納會 二十三日과二十五日後場은休會、二十七日의 普通當限納會日은 後場立會、二十九日受渡日이다

實物前場取引

▲豪州麥 三三〇〇 ▲東洋칠루 [illegible] ▲滿洲煙草 三〇〇 ▲東拓鑛業 六三〇

日産의 買餘地
投機性回復?

日産은 日立 日鑛等時代에相當한 反映하고 各其自身의 團性을 發揮한可能性이 만코 또價位觀으로서도 他株에比하야 過低인 狀態이며 久原가今後引繼엇同 日産關係를斷絶하면 從來事業株라는 事實을無視하고 極度로悲觀하야 買込되反動高도잇슬것이니 相當한 買餘地가잇슬것으로 今後市場人氣의 活潑化에 伴하야어떠 程度로 投機性을回復하야 漸騰될것으로 보인다

▲理論과實際=東新弱氣

의主張은 時局影響에 一致된듯하나 東新도 一般事業株와 大差업는利回로 될때까지 決코 理論은 決코 實際는 아니라하겟스나 實際는 理論대로만 가는것이 아니오 低利回의 東新市勢에 數十年의 歷史가 잇는點도 考慮할일이라는 말이잇다

金利市勢特色
押目買一貫?

一步退하고는 一步進하야 어듸까지 가든지 地味한 步調이속에 잇슨는 사항은 正條件 비取하고가 만하잇스면 不知間에 位置가 高케 될것이나 所謂 金融界의 彈力的으로에는 不適한 市勢이다 飛付하면 그것이 小天井이되고 잘못하면 低價로 買入하게되다 이것이 即 金利市勢의 特色으로서 이런때에는 地味의 好理調이 잇기 마련이다 利回가 押目買方針으로 一貫하여야 할것이다 어듸까지든지 取組가 增大케되기 까지는 市勢의 壽命이 잇는것이겟스나 勿論極히 徹底的인것이라고 봄이 옳켓다

今日財界(廿二日)

◆米

		午前止	前日比
仁川期米	先限	三〇·三〇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三三·〇〇	[illegible]
◎三等米	一石	三〇·〇〇	[illegible]
正米(仁川)	一等	[illegible]	[illegible]
一斤	一匁	[illegible]	[illegible]

◆市中金 十圓○七錢 / 十四圓○五錢

◆株

	午前止	前日比
朝新	二六·八	[illegible]
東新	一三七·六〇	[illegible]
日産	七三	[illegible]
大阪三品	[illegible]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고무現	[illegible]	[illegible]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商通】米價의 買氣가 不振하고 其他도 大體閑散으로 推移되엇다

甲五分利	一〇一、〇〇
一回四分利	一〇二、〇〇
二回四分利	一〇三、〇〇
佛貨四分利	一九八、四五

日本銀行 二百〇二圓 ▲朝鮮 [illegible] ▲北樺太石油 [illegible] ▲滿洲化學 [illegible] (取引高 一〇〇枚)

期米 頑强不落 堅調

前場少落 昨後場阪地三十三圓十錢止와 共히 三十圓七十六錢에 寄付하야 當市場은 今朝 阪地初付三十三圓〇四錢인 六丁反落으로 寄付하고 三十圓七十五錢이 一丁低로 寄付始한 後 阪地一錢까지 下押하엿다가 二錢에 止해잇고 五錢까지 小戾 三十圓七十六錢으로 結局七十二錢에 寄止하엿다

後場頑强 後場은 三十圓七十三錢에 二丁高로 始發하고 七十七錢에 頑强不落이고 七十七錢에 止해엇다

天氣如何注目
來六月부터

今月의 市勢도 前月의 保勢와同樣으로 發會後六、七日以內에 五十餘丁의 反騰을示하고서 因而保合圈內에 入하야 當地는 三十圓七十錢臺를 中心으로 狹少해지며 阪地는 三十三圓臺에서 終始하고잇다 實米의 事情만으로는 압흐로 前途의 又復高價가 잇슬것을 豫期할수잇스나 그러나 二年繼續의 凶作後이라지 能히 相當한 高價를 示하엿슴으로 此에는 買方도 警戒를 加하는 모양임으로 月末까지는 此以上의 高價를 期待키 難할것갓다 그러면 압으로 大勢가 如何히 展開될것인가를 一考하면 來六月부터는 植付를 始作하게 됨으로 天候의 如何에 依하야 ……

……의 關係이라고는 利하 又는 一時的 反騰에 不過하엿슴으로 大勢 市勢는 前途高價를 보아서의 低落은 [illegible]

大阪 市勢는 [illegible] 府所有米 六百六十萬石을 [illegible] 十萬石에 不過한다 [illegible] 來年端境期까지 [illegible] 보아서의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堂島前場賣買

▲賣方=東京側 ▲買方=地場筋

京城保合 / 仁川不變 / 釜山閑散 / 大邱釘付 / 群山同調 / 木浦底堅

仁川不變 當地는 高價에相當히 賣氣가潛在하나 低價에는 全然賣氣가 업고 取引은極히 不振이엇다 丸仁三等三十圓丁 四等二十九圓七十錢

釜山閑散 天候不良과 實物 [illegible] 一等白米十二圓四十五錢

大邱釘付 不賣不買의 無風狀態이오 極端한閑散裏面을繼續하얏다 角ㄱ三等二十九圓四十錢 四等二十九圓六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六十錢

群山同調 産地의 賣止的態度로 市場은 實物拂底와 反面定期不透明으로 買氣不振이오 搗面 極度의閑散에 陷하얏다 ㄱ三等三十圓 三十錢 四等二十九圓十錢 一等白米十二圓十五錢

木浦底堅 昨日三十錢暴騰의 뒤를이어 今朝는 値頃警戒가 强하야 定期不味로 十錢低唱이나 目前强含인 三等三十圓五十錢 四等三十圓四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丁

金·銀·白金 賣買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壹壹○番地(小廣橋側) 電話本(2)三一三六番 振替京城五壹五四番 地方注文{代金引換販賣 送料先金}

期米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株式 期米 (玉) 柳來憬商店 仁川府本町 電話 [illegible]

朝鮮紙物都賣 北 京城府仁寺町二五六番地 全北企業株式會社 電光七四五番 振替京城二四一八〇番 支店 全州府本町一丁目 電一五四番 兼委託販賣

土金 石金 (福) 高價買入 石福鑛業株式會社 金·銀·白金·地金部 電話本局四八五六

金融(廿二日)

◆海外經濟(二十一日) [illegible]
◆朝鮮銀行券(二十日) [illegible]
◆日本銀行券(二十日)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東京市中社債 [illegible]
◆京城府中金融債 [illegible]

市況(廿二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京城穀類 [illegible]
◆京城綿布 [illegible]
◆京城綿系布市勢 [illegible]
◆京城油價 [illegible]
◆京城肥料價 [illegible]
◆京城米期 [illegible]
◆日本豪朝市況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産市況 [illegible]

株式(廿二日)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朝取短期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期米(廿二日)

◆朝取期米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各地正租市勢(單位錢) [illegible]

商品(廿二日)

◆大阪綿系 [illegible]
◆大阪綿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系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